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17호 HYUNBULNEWS.COM 2025년 1월 29일(음력 1월 1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상생과 화합의 한 해 만듭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2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69(2025)년 을사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은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발원했다. 사진은 신년하례법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모습. 〈관련기사 3면〉 사진=김내영 기자

진우 스님 "선명상 국민운동 확대하겠다"

1월 23일 신년기자회견 개최
국제선명상대회, 연등회 연계
4~5월을 '마음 평화의 달'로
1원 체제로 전환…전법 강화
"전법, 직접 챙기겠다" 강조
"현 사태, 수처작주 되새겨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5년 한 해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발원했다. 한국불교 지혜를 담은 선명상을 국민운동으로 확대, 마음 평안으로 안내하는 원년의 해를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으로 한국불교 중흥과 함께 승단의 위의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종은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로비에서 '불기2569년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치유' '평안' '화합'을 기치로 올 한 해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대자비와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기 2569년 종책과제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 불교 구현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전통문화관련 국가제도 개선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종무행정 역량 강화를 꼽았다.

조계종은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나선다. 2024년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선명상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대내외적 관심 제고의 초석을 마련한 조계종은 '2025 국제선명상대회'를 통해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문화 계승 및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의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전국 주요 사찰 인프라와 지역의 연계성을 활용, 선명상 콘텐츠 보급과 확산을 추진하고 선명상의 대중적 보급을 위해 지도법사와 지도사 양성도 나선다. 세계인에게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국내외 명상전문가를 초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화를 위한 방안을 찾는 한편,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중앙선명상센터를 건립, 선명상 중앙본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인의 정신혁명이 될 제5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 1700년 지혜를 담은 간화선 수행 전통에 기반해 현대인들에 맞게 수행법을 대중화할 것"이라며 "선명상은 정신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K-문화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하겠다고도 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30년 만에 조직개편을 결정하고 올해 4월부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시행한다.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포교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홍보실을 신설, 포교의 방편을 다양화한다.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해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앞으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3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직 통합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승가교육체계를 현대화해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 중흥을 서원하며 승단의 위의를 세울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님은 "탈종교화 사회와 연결된 출가자 감소 문제는 한국불교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라며 "출가와 수행이 곧 나와 세상을 위한 길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승단의 위의는 곧 수행의 가치"라며 올봄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과 함께하는 '담선대법회'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승려복지의 목적기금 확보를 통해 질적 도약을 체계화할 것도 약속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희망의 봄'을 염원했다.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들어 종단의 역량을 결집할 것을 강조한 스님은 "불교박람회, 국제선명상대회, 연등회 등을 통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국민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안을 전할 것"이라며 "세계인들에게는 K-문화의 근간이 되는 인연과 인과,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적 심성 등 한국불교의 정신을 소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구촌은 전쟁의 고통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흰 눈이 녹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면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지혜와 의지로 스스로 주인공이 돼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 한국불교는 지난 겨울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따뜻한 봄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불교계 현황뿐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근 벌어진 서울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반대 시위대의 서울지법 난입에 대해 진우 스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인간이 1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만큼, 좀 더 이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면〉

"생명나눔 불사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나눔 · 현대불교신문 MOU
1월 21일, 생명나눔 중앙본부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2025년을 맞아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기획을 새롭게 시작한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 발행인 혜도 스님)은 1월 21일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본부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공동기획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희망'을 키워드로 한 이번 기획은 생명나눔 실천의 역사와 비전을 망라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비나눔 실천 사업에 대해 담아낼 예정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이번 공동기획을 통해 생명 나눔 문화가 우리 사회에 확산되길 기대했다. 일면 대종사는 "지난해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30주년을 맞이했다. 역사와 전통을 가진 두 기관이 생명살림 문화 전파를 위한 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면서 "현대불교신문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더욱 많은 이들이 생명살림의 기쁨을 알고 자비나눔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대불교신문 발행인 혜도 스님은 "두 기관이 함께 30살 청년이 된 이후 새롭게 맺는 업무협약이라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진다"며 "현대불교신문은 모든 생명의 마음을 일깨워 살린다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모토로 생명나눔실천본부의 생명살림, 자비나눔의 뜻에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앞으로 현대불교신문은 생명나눔실천본부의 많은 사업과 나눔 활동을 적극 보도해 후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 등 기부문화가 사회에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가령 기자


(사진 왼쪽부터)본지 발행인 혜도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 한명우 본지 대표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설 연휴 관계로 다음 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소통 강화·역동 불교…'K-불교' 구축 나선다

키워드로 보는 2025년 조계종 종책과제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2025년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발표된 2025년 조계종 종책과제에서는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조직개편을 통한 역동적 불교 구현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전통문화관련 국가제도 개선 등이 주요 핵심 과제로 소개됐다.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국민들의 마음 평안과 행복을 위해 지난해 조계종단이 제안한 선명상은 올해 국민 운동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제안한 '우선 멈춤' '5초 명상' 등은 일상에서 많은 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해 보급된다.

세계적 명상가들과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소개하는 '국제선명상대회'도 4월 시작된다. 도심과 전국 주요 사찰에서 선명상프로그램과 선명상 템플스테이를 통해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잇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조계종은 현재 서울 도심에 중앙선명상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건립되는 중앙선명상센터는 도심 속에서 안정적인 수행 환경을 조성해 선명상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뿐만 아니라 선명상 보급의 중추가 될 전문 지도인력을 양성한다. 이들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화쟁과 화합이라는 전통의 지혜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고통의 현장에도 적극 나선다.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육성하고, 연간 10억원 이상의 활동 기금을 조성해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공익적 역할을 위해 사찰림을 보전, 활용하고 사찰림 연구소를 종단 공식 기구로 편재해 본격적인 연구와 공익적 사업 부분을 이어갈 예정이다.

조직개편으로 역동적 불교 구현

조계종은 지난해 30년 만에 조직개편을 결정하고 올해 4월부터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통합을 시행한다. 이는 3원으로 분산돼 역동성이 떨어지는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직 통합으로 유기적이고 신속한 행정이 시행됨에 따라 신도들의 신심을 증장하고 승가교육체계를 현대화해 역동적인 불교를 구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을 통해 앞으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긴다.

교육의 틀에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행자 교육 시스템부터 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방안을 준비 중으로, 미래 한국불교를 이끌어나갈 선지식을 배출할 수 있도록 승가교육의 수행정신을 계승해 현대적 교육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산중에서도 양질의 교학을 학습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내영 기자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 선명상 프로그램 활성화
- 조계종 중앙선명상센터 건립
- 불교의 사회적 역할 및 소통 강화

조직개편으로 역동적 불교 구현
- 종단 포교, 신도단체 조직 변화 및 신행단체 활성화
- 계층 포교 연계 강화
- 청년대학생 출가 장려
- 전통 기반 현대적 승가교육 체계 개선
- 승려복지 강화로 승가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
- 한국불교세계화
- 불교문화유산보전센터 개관 및 민간 보존처리 기반 육성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 젊은 불교, 힘한 불교를 위한 '불교의 달' 추진
- 불교문화대전 활성화로 불교 문화 구현
- 템플스테이 지역 연계 활성화
- 불교 문화 영상, 음악 등 콘텐츠 발굴 및 제작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

조계종은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들어 종단 역량 결집의 기간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힘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를 연달아 배치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고 전통의 지혜와 최첨단 문명이 어우러지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선보이겠다는 게 조계종의 포부다.

진우 스님 취임과 함께 천명했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도 계속 진행된다. 올 상반기 국가유산청과 경주시의 입불 모의실험이 완료될 예정이다. 실험이 완료되면 올해는 마애부처님을 여법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젊고 힘찬 문화 불교 구현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젊은 불교' '힘한 불교'의 흐름을 이어 나가면서 현대인들이 주목하는 뉴미디어를 통한 포교를 더욱 강화하며 새롭게 신설된 '미디어 홍보실'을 통해 한국불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을 널리 알리고, 지속적으로 젊은층과 직접 소통하면서 포교의 방편을 다양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젊고 힘찬 불교 문화는 10월에 개최되는 '불교문화대전'을 통해 집대성되고 새로운 방향을 열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구니회 수행결사…"1년 정진 비결은 '도반'"

비구니 · 우바이 수행 공동체 "일상 전체 수행 되는 경험"

청정한 수행 가풍 진작을 위해 출범한 비구니스님과 우바이들의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가 19차례의 정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월 20일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만불전에서 '2024년 청정승가공동체 수행결사 1년 회향법회'을 봉행했다. '청정승가공동체'는 전국비구니회가 2024년 3월 18일, 4년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여성불자 수행공동체다. 비구니스님과 여성 재가불자들이 사찰에서 함께 수행하는 것은 물론, 대중소임 또는 가정 등 각자의 처소에서도 수행정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광용 스님은 회향사에서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1년간 함께 수행하니 '부처님 당시의 수행도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부처님께서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셨을 것이다. 2025년의 수행도 잘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1년간 지도법사를 맡은 범라 스님은 "'숩따붇다'는 전생의 불선업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지만 지은 선업이 있기에 도를 이룰 수 있었다"면서 "도를 이루는 데 방해가 되는 불선업은 멀리하고 늘 선업을 가까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소모임 수행은 5~6명이 조를 이뤄 수행 경험담과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사 대중은 이번을 계기로 도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입을 모았다. 혜욱 스님(춘천 봉덕사)은 "재가불자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에 원동력을 얻었다. 함께하는 수행이 정말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부협(78) 불자도 "혼자 수행하다가 여러 도반과 수행하니, '알아차림'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다"며 "함께 수행하는 스님과 도반들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수행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오는 3월 17일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소장 서광스님을 지도법사로 2025년 수행결사 입재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02-3411-8103

김민재 기자

현대불교신문 임직원, 진우 스님 예방



설을 맞아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에서 현대불교신문 임직원들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설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예방에서 진우 스님은 "다양한 기획기사로 신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고 덕담하고 "앞으로도 불교 언론을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AI를 도입하고 있는 것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스님은 "앞으로도 AI를 적극 활용한다면 더욱 풍성한 지면이 될 것"이라며 "현대불교신문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격려했다.

한명우 대표이사는 "지난해 창간 30주년을 맞아 재도약을 선언한 만큼, 지속가능한 고품질 뉴스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 3월 26일 개회

안건 접수 마감 3월 19일까지 세입출 결산 · 호계원장 선출도

불기2568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계종 호계원장 선출 등을 다룰 제23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26일 오전 10시 개회한다. 회기는 3월 30일까지 5일간이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9(2025)년도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종책모임 회장단 제9차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33회 중앙종회 정기회 일정을 논의했다.

안건접수는 3월 19일까지며 종책질의는 3월 21일 마감한다.

임은호 기자

대원아카데미 2025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시설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필요한 학점 취득 가능
학습과목
인지심리학(심리학 전공/3학점/목요일)
정신분석학(심리학 전공/3학점/금요일)
주 1일(목 · 금) 14:30~17:30, 15주
신청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수강료: 100,000원(과목당)

학점은행제 과목과 평생교육과정 동시 수강 가능
○인지심리학(학점)+명상지도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정신분석학(학점)+심리상담사(평생교육과정) 수강료: 30만원

◎ 평생교육과정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화 · 수) 13:00~17:00
(목 · 금) 13:00~17:30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 **공통과목:** 진화인간학, 불교란 무엇인가,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명상과 (생명)과학, 서양에서 보는 불교, 명상심리학 등

○ **전공과목:** 유식학, 명상 세미나와 실습 I , 불교명상학,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자아초월과 불교심리치료, 명상과 치유, 불교심리학, 정신건강과 참선명상, 명상의 이해와 실습, 위빠사나 이론과 실습,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상담심리학, 사마타 이론과 실제,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등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언제 어디서나 수강 가능

모집과정
대학원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화 · 수) 13:00 업로드
(목 · 금) 13:00 업로드
수강료: 200,000원(학기당)

○ **교수진**

김동한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상담사, 명상심리학 박사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성소은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대표, 사회학 박사 수료

이승욱
'닛부타의 숲 정신분석클리닉' 대표, 심리분석학 박사

이충현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 교수, 불교상담학 박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철학 박사

최일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심리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수강료 100%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수강료 50% 지급
스님 등록 시, 본인 수강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강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강료 50% 할인
2개 과정 동시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민간자격(명상지도사, 불교심리상담사)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접수 기간
학점은행제: 2025년 3월 6일(목)까지
평생교육과정: 2025년 3월 4일(화)까지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5년 3월 11일(화)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kbpf.org

“갈등·분열 속 상생의 길 모색 합시다”

1월 21일, 종단협 신년하례
진우 스님 등 사부대중 동참
“자비로 사회 전체 행복 증진”
대불련에 장학금 1000만원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이 부처님께 연등공양을 올리고 있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 지도자들이 2025년 새해를 맞아 깊어가는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것을 발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종단협)는 1월 2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기2569(2025)년 을사년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이어 연등과 꽃 공양, 부처님께 3배로 신년하례를 올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대중하례를 나누며 새해 안녕을 기원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신년법어에서 자비의 실천으로 행복에 다가가길 서원했다. 스님은 “사회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불교는 ‘자비’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천한다”며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자비의 마음을 확장해 세상에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치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신년인사에서 “새해는 우리 사회에 불보살님의 동체대비심이 가득 퍼져나가길 바란다”며 “전 국민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 상생과 통합의 미래를 열어가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은 “모든 국민이 평화로우며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쉼 없이 정진할 것”이라며 “새해에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 ‘시화연풍’의 시절을 즐기며, 먹을 것이 풍족해 배를 두드리며 살 수 있는 ‘함포고복’의 세상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계 인사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해결해 가야 할 많은 일 앞에 자비와 중도의 가르침이 절실하다”면서 “스님과 불자들께서 다시 한번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는다. (문체부도) 문화의 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은 “연말 사회적 재난 속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어려운 시기마다 고승대덕 스님들의 공덕이 미래를 위한 걸음을 내딛게 한다”면서 “국민이 계속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길 바란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동참대중을 대표해 신년발원문을 낭독했다. 능원 정사는 “우리는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뎌야 했다. 나라가 혼란해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과 사고로 큰 아픔을 겪었다”며 “부처님의 한량없는 자비로 우리 사회가 다시 평화와 안정 속에서 희망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굽어살펴 달라”고 염원했다.

한편 이날 종단협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이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후원금을 종단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종단 불사 3000만원 ‘쾌척’

1월 20일 총무원장 접견실서
선법가 합창제 모연금 ‘회향’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이 지난해 11월 24일 개최한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모연 후원금을 종단 발전 기금으로 쾌척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기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지난해 개최했던 ‘선법가 40주년 합창제’ 수익금 사용처를 고민하다가 전국 지원들의 뜻을 더해 종단 발전 기금으로 회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내 승가 교육 체계의 변혁을 앞둔 지금, 전달해준 기금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마음선원 대행선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최근 KCI 등재 학술지가 됐다고 들었는데, 새롭게 조직 개편한 조계종연구소에도 많은 도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리에 배석한 선원 대중에게 인사하며 “후원을 비롯한 선행은 나의 복전(福田, 복밭)을 가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사부대중은 선법가 40주년 합창제에서 모연된 후원기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다나에도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종 ‘선명상위원회’ 발족…“정신문명 선도 일굴 것”

1월 20일, 접견실서 위촉식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 산하
초대 위원장에 금강 스님


선명상위원회 위원 21명은 위촉식 수여 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는데 힘쓸 것을 다짐했다.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조계종 ‘선명상위원회’가 꾸려졌다.

조계종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총무원장)’는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열고 출·재가자 위원 2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진우 스님은 중앙승가대 교수 금강 스님을 초대위원장으로 발탁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동국대 종학연구소장 정도 스님 △행복선명상센터 지도법사 하림 스님 △남양주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진경 스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 스님 △중앙종회의원 종원 스님 △총무원 홍보국장 덕안 스님 △미래본부 사무국장 여해 스님 △마음치유학교장 혜민 스님 △홍대선원장 준한 스님 △前 국제포교사회장 정혜 스님 △문사수명상연구원장 일중 스님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 △진관사 명상센터장 혜주 스님을 비롯해 △김열권 붓다선원장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김병전 하루명상 대표 등이다.

더불어 선명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도 갖춰졌다. 자문위원은 △카이스트 교수 미산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 선덕 월암 스님 △동국대 이사·前 동국대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문경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문경 한산사 용성선원장 선법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소장 서광 스님 등 6명이다.

진우 스님은 위원들에 “현대사회에 발맞춘 체계적이고 쉬운 ‘선명상’을 보급해 자연스럽게 불교의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한국불교 전통 수행과 명상을 접목시킨 선명상을 전 국민이 실참하게 된다면 불교계가 정신문명사의 선두적 역할을 일궈낼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초대위원장 금강 스님은 “이제까지 원장스님 홀로 선명상의 기반을 일궜다면 이제부터는 위원들도 지혜를 모아 세상 사람들이 마음 안정을 이루고 지혜와 자비를 발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선명상위원회는 2월까지 ‘선명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를 개발해 템플스테이 운영 사찰에서 3월부터 시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단계별 선명상 프로그램 개발 △선명상 전문가 양성 과정 설계 △법회 시 선명상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공교육 내 선명상 도입 제안도 추진되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가령 기자

동국대 조직 개편…미래 동력 구축

BMC부총장 신설…지역 위상 강화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단 신설해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돈관 스님)는 1월 1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58회 이사회 회의를 열고 서울캠퍼스 직제 개편과 첨단분야 정원 증원 계획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동국대는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을 위해 BMC(바이오 메디컬 캠퍼스)부총장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서울캠퍼스는 4부총장, 1실 11처, 15개 단과대학과 13개 대학원 체제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BMC 부총장 신설은 지역사회의 BMC 위상 강화를 통해 경기도 라이즈(RISE) 사업 수주를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또 2026년 건학 기념사업을 전담하는 ‘건학 120주년 기념 사업단’을 신설하고 120주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첨단 분야 정원 증원 계획을 통해서는 2026년도 첨단 분야 전공에 대한 증원과 신설할 것이 보고됐다. 동국대는 △차세대 반도체 △첨단신소재 △양자 △에코업 △바이오 헬스 △차세대 통신 전공 증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사 원명 스님은 “학생 정원 조정에 관련해 불이익이 있는 학과가 분명 있다. 교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잘 조율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사 덕문 스님은 “첨단 학문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 종립 대학이라는 정체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학과 신설에 이어 전통 문화유산 보존학과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분야를 동국대가 선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및 시행세칙 변경 △교원 인사의 건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학생정원 조정의 건 △동대부금산고 시설적립금 적립계획 변경 승인의 건 △경주병원 로봇 수술기 추가 도입 승인의 건 등을 가결했다.

한편, 이사회에 앞서 이사 성행 스님은 지난해 12월 원적한 은사 대궁당 종상 대종사 명의로 동국장학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중일 기자

점성술이나 제사 등에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찰을 운영할 수 있는 불법을 배웁시다.

강남불교대학에서 불교를 공부하면 **10명의**
신도만 확보해도 사찰운영이 가능합니다.

강남불교대학에서 새로운 불교를 만나보세요.
강남불교대학에서 2025년 승려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강남불교대학 승려반 설명회

일 시 2025년 2월 24일(월요일) 오후3시
장 소 강남불교대학 참종사 (서초구 방배동)
참가자격 사찰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스님
점성술이나 제사에 의지하지 않고 사찰을 운영하고 싶은 스님
불교를 제대로 배우고 싶은 스님
스님이 되고 싶은 재가자

참가신청은 QR코드로 ▶
문의 02)532-0012

제2차 대한언론 문화포럼

대한민국 국운(國運)
원행(遠行) 대종사님에게 듣는다

을사년에 ‘대한민국 국운’ 전망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타개책을 함께 나눠보고자 담론의 장(場)을 마련하였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25년 2월 6일 (목) 오후 3시~5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연 사 : 오대산 월정사 선덕(禪德) 원행(遠行) 대종사
- 주 최 : 대한언론인회
- 주 관 : 통일국회뉴스 세계평화뉴스
- 후 원 : (사)대한노인회중앙회 행복만들기중앙회
- 연락처 : 010-8455-9009

상진 스님 금구옥설 법문, 책으로 묶어내다

상진화상 문도회, '수봉상진 법어집' 봉정식

1월 19일 양주 청련사서 봉행돼
상진 스님 고희 맞아 법어집 편찬
운경 종정예하 등 1천 대중 운집
"부처님 바른 법 세상에 드러나길"

양주=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수봉상진 법어집'을 봉정하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고희를 맞아 스님의 금구옥설(金口玉說) 법문이 책으로 묶어져 부처님께 봉정됐다.

상진화상 문도회(회장 효능 스님)는 1월 19일 양주 청련사에서 '〈수봉상진 법어집〉 봉정식'을 봉행했다.

〈수봉상진 법어집〉은 2018년 상진화상 문도회 정기총회에서 법어집 편찬을 결의하며 시작됐다. 이후 문도회는 매년 2~3차례 편찬회의를 개최하며 상진 스님의 법문 자료를 취합하고 편찬 방향을 정해 나갔으며, 이를 토대로 2021년 초안이 만들어졌다. 2022년 심곡·벽산·효능 스님을 위원장으로 편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최종남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이성운 동방불교대학원대학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구미래 불교민속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편찬위원들은 스님의 법어 중 63개의 법문을 선정하고 △법의 향기 △대중법어 △BTN불교TV 특별법문 △언론대담의 주제로 분류해 묶었다.

이날 상진문도회장 효능 스님은 문도스님들이 오랜 정성으로 묶어낸 〈수봉상진 법어집〉을 상진 스님에게 전했고, 상진 스님은 법어집을 부처님에게 봉정했다. 봉정 직후 상진 스님은 법어집 편찬위원장 심곡·벽산·효능 스님에게 공로패를, 편찬위원들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상진 스님은 봉정사를 통해 부처님 법이 바르게 전해져 불은(佛恩)에 보답하길 기원했다. 상진 스님은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劫即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이라는 법성게의 게송처럼 소납의 지내온 세월 또한 한량없는 오랜 세월과 찰나의 순간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면서 "매 순간마다 하심과 번뇌의 갈림길에서 수행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며 걸어왔던 삶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회고했다.

이어 "소납의 진심과 하심의 울림이 법어집을 통해 세간과 출세간에 널리 퍼져 부처님의 바른 법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법고(法鼓)가 돼 출가수행자로서 만분의 일이나마 부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종정예하 운경 스님은 법어에서 상진 스님의 애종심과 업무 추진력을 치하했다. 운경 스님은 "상진 스님의 법어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책(법어집)을 볼 때 소리만 들어서는 안된다. 소리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진실의 눈으로 부처님 법을 볼 수 있어야 깨닫고 평안함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 첫 졸업식… "불교 의례로 전법"

1월 21일 강서구 홍원사서 개최
상주권공 · 각배 · 영산과 이수한
화암 스님 등 4명에 졸업장 수여
동주 스님 "졸업 후에도 정진을"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1월 21일 강서구 홍원사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1회 졸업생 하경 스님,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 스님, 졸업생 화암 스님(어산종장), 지성 스님.

경제어산전승보존회가 첫 졸업식을 열고 불교의례 전문 스님들을 배출했다.

경제어산전승보존회는 1월 21일 서울 강서구 홍원사에서 제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서울시 무형문화유산 제43호 경제어산 보유자 동주 원명 스님(조계종 어산어장)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 중 상주권공과·각배과·영산과를 모두 이수하고 실력을 인정받은 4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졸업장을 받은 졸업생은 조계종 어산종장 화암 스님, 보천 스님과 지성 스님, 하경 스님이다.

동주 원명 스님은 훈화를 통해 "졸업생들은 오랜 시간 불교의식을 배웠다.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부단하게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졸업생들은 졸업 후에도 정진하며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을 다짐했다. 졸업생을 대표해 인사에 나선 화암 스님은 "가르침을 주신 동주 원명 스님께서는 저희 1회 졸업생들에게 '격을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저희 제자들은 그 뜻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번 졸업을 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배운 것을 더욱더 연습하고 연마하면서 나아가 상용 의식이나 전문 의식까지도 두루 섭렵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신중일 기자

공불련, 2025년 신년법회…"불자회 재건에 주력"

1월 18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서
문광 스님 법어서 '중도' 강조



공불련이 을사년 신년법회를 봉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을사년에는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별 불자회를 구성하고 재건하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가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정승윤, 이하 공불련)가 1월 18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2025년 을사년 신년법회'를 봉행하고 공불련 조직 재건과 활성화를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는 정승윤 공불련 회장, 김진해 고문, 전충렬 고문, 이영하 수석부회장, 권근상 사무총장, 장차철 사무국장을 비롯한 32개 기관 불자회 회원과 가족 180여 명이 동참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격려사에서 "공무원불자 여러분들은 2025년 올 한 해, 반야의 지혜를 만들어 나라와 국민을 위해 많은 복을 지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윤 공불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무원 불자들이 새해를 맞아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서원한다"며 "부처님 지혜를 바탕으로 어려운 형국을 헤쳐 나가고,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광 스님은 이어진 법어에서 '중도'를 강조했다. 스님은 "공무원 불자로서 국태민안에 기여하려면 '중도'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참선과 명상을 통해 무심(無心)의 세계로 들어가면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 마음의 빛으로 나라와 국민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달라"고 설했다.

김민재 기자

해외특별교구, 해외사찰 지원 위한 인재 파견

1월 16일, 미국 LA 달마사에
제1호 파견…국제포교 도움


천된 국제포교사들은 2년여의 임기 동안 해외 한국사찰에서 동포들의 신행심을 고취시키고 한국교포 2~3세대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진력한다.

인력난으로 포교활동에 난항을 겪는 해외 한국사찰을 위해 해외특별교구가 국제포교사회와 협업해 국제포교사 파견을 시작한다.

해외특별교구(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는 1월 16일 정경래 씨를 미국 LA 달마사(주지 금선 스님)의 제1호 파견 국제포교사로 발탁해 파견장을 수여했다.〈사진〉

한국사찰은 전 세계 80여 곳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다수 사찰이 인력난으로 주석스님 홀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하거나 불자들이 주말동안 행정 업무에 힘을 보태는 경우가 많아 포교 활동에 곤란을 겪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해외특별교구는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의 추천을 통한 인재 파견 사업을 시작했다. 추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해외에서 한국불교가 자리 잡기 위해 해외포교 프로그램 개발, 인재 양성 다각화 등도 진지하게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파견된 정 포교사는 국제포교사회에서 진행해온 '미국 횡단 포교 로드 투어'에 수차례 참여한 해외포교 전문가다. 이번 파견에서는 달마사의 어린이 불교학교 운영을 위한 한글학교, 포교활동 등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정 포교사는 파견장을 수여받은 당일 미국으로 출발해 1월 18일부터 불교학교 운영을 시작했다.

김가령 기자

조계사·봉은사 신년하례…"불자로 모범"

1월 22일 진우 스님 예방서


서겠다"고 전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직영사찰이자, 서울 대표 전법도량인 조계사·봉은사 대중에게 불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당부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신년하례를 가졌다.〈사진〉

진우 스님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불자다운 신행과 신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에 불심이 옅어지면서 국민 간 화합이 어려워졌다. 불자들이 자비와 화쟁 등 불교 정신을 잊지 말고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은 "조계종 총본산으로서 국민에게 불심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 방안으로 총무원장 스님이 추진하는 선명상을 실천하고 알리는 데 앞장

같은 날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도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종단과 발맞춰 전법에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주지스님 이하 봉은사 사부대중이 강남 중심에 있는 가람을 잘 보존해줘 고맙다"며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져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가져달라"고 덕담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봉은사 신도들과 잘 화합해 앞으로도 강남 전법 도량인 봉은사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며 "또한 종단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진식 봉은사 신도회장도 "봉은사 신도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소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진우 스님, "군불교 발전 총력 기울일 것"

1월 22일 군종특별교구 신년하례서
법원 스님, "한마음으로 포교 매진"


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군포교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 군장병에게 불심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종특별교구가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새해를 맞아 군종특별교구의 신년하례를 받고 "군불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법원 스님은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진우 스님은 "군불교가 잘 되야 불교도 살아나고 출가자 독려도 된다"며 "앞으로도 군불교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위기상황은 불심(佛心), 화쟁·자비 정신이 부족해

교구장 법원 스님은 "종단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작년에 10만여 명이 수계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화답하며 "올해는 군종교구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된 해다. 2025년 한마음으로 불교 포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조계사·나눔봉사단, 취약계층에 설 선물

1월 22일, 조계사 산하기관 5곳
즉석밥 · 라면 · 김 등 700상자


골 국물 등 식료품 키트로 구성됐다.

조계사(주지 담화 원명 스님)와 행복나눔가피봉사단은 1월 22일 경내 백송 앞마당에서 '2025 설맞이 따뜻한 동행 나눔누리전'을 가졌다.〈사진〉 전달식에서는 조계사 산하기관으로 운영 중인 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중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종로구주민소통센터 등 5곳에 십시일반 마련한 설 선물 700상자를 지원했다.

선물은 명절 동안 편리하게 끼니를 챙길 수 있는 즉석밥, 라면, 김, 사

이승현 조계사 신도총회장은 "올해는 모두가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경 행복나눔가피봉사단 상임이사는 "설을 맞아 지역 내 700가구에 마음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필요한 곳에 온기를 전하면서 지금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내영 기자

좋은 벗 풍경소리, 찬불창작곡 59집 공개

불교학교 · 법회 등서 활용

찬불창작곡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좋은 벗 풍경소리(대표 이종만)가 59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풍경소리 음악은 CD, USB, 악보 등으로 제작돼 일선 포교 현장에서 불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와 불교학교, 연수회, 강습회, 산사음악회 등에서 교재와 행사 음악으로 활용된다.

앨범에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밝고 힘찬 곡 '그 길을 따르리라'(성원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로 시작된다. 이어 풍경소리 어린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노래한 '부처님 길'(김소영 작사/정유탁 작곡), '내 마음'(성원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 '눈'(최미선 작사/작곡) 등이 수록됐다. 일반 불자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설중매'(원철 스님 작사/서근영 작곡), '달빛 머무는 갈대밭'(최동호 작사/이종만 작곡), '아름다운 인연'(성원 스님 작사/강영화 작곡), '좋은 인연'(덕신 스님 작사/이종만 작곡)을 등 다채로운 곡도 포함됐다.

김내영 기자

“본성을 챙기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국제포교사회 열린 대법회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조규태)가 1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금강 스님과 함께하는 열린 대법회’를 봉행했다. 국제포교사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린 대법회를 열어 불교계 ‘명사’를 초청해 법문을 듣는다. 이날 법석에 앉은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은 ‘선명상, 참사람 향기’를 주제로 법문을 설했다. 이날 법문 내용을 정리 · 게재한다. 〈편집자 주〉

정리=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금강 스님은…17세에 대흥사 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해인사, 중앙승가대학, 백양사 운문선원 등에서 공부했다. 2000년부터 20여 년 동안 미황사 주지를 맡아 참선수행–참사랑 향기, 한문학당,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수행 ·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2014년부터는 행복공장 홍천 수련원 무문관에서 간화선 지도를 해오고 있다. 현재 조계종 교육위원장, 중앙승가대 교수,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상임이사, 선명상위원회 초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국제포교사는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던 신행단체이기 때문에 오늘 수행에 도움이 될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비, 깨달음, 자신에 대한 믿음, 마음, 수행, 선(禪)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화두 한 자락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비입니다. 선명상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비’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와 달라이라마의 ‘자비’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저에게 증조할아버지뻘 되는 스님인 만암 스님의 시입니다. 조계종의 초대 종정을 하셨던 분입니다. 스님의 시를 보다가 자비심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은 어디에 막힘이 없이 흘러간다.” 봄바람은 남도에서 이 서울, 저 북녘까지 어디에도 막힘없이 붑니다. 그러면 곳곳에 붉은 꽃,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이 봄바람의 도리를 안다면 마음은 점점 밝아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봄바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언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까? 자기가 기대하는 시기에 봄바람이 불면 좋을 텐데요. 하루 늦어지고 이틀 늦어지고 3일 늦어지고 점점 기다리는 것이 늦어진다면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감정은 원한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죠. 중생은 봄바람을 기다리는 사람이고, 보살은 봄바람입니다. 국제포교사 여러분은 봄바람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는 조선시대 서산 대사의 직계제자, 소요 대사의 시입니다.

“개개의 얼굴에 밝은 달처럼 환한 빛, 사람 사람마다 바람에 맑은 바람. 거울 속 모습을 깨뜨리고 그림자 자취마저 없앤다면, 새가 한 마리 가지 위에서 노래하니 꽃이 피네.”

사람마다 얼굴이 있습니다. 물건마다도 얼굴이 있구요. 장소마다도 얼굴이 있습니다. 각각의 얼굴에서 밝은 달처럼 환한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마다 맑은 바람이 분다는 건 내 기준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보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거울 속 모습은 깨뜨려야죠. 과거에 행적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새가 노래하고 가지에 꽃이 피듯이, 가는 곳마다 꽃을 피우게 합니다.

달라이라마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자비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비를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낸 것이죠. 이 자비는 우리를 불성으로 이끌게 합니다.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는 어떤 것일까요? 육조 혜능 대사는 나무꾼이었다가 어느 스님의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혜능 대사는 오조 홍인 대사를 찾아 뵙고 그 밑에서 8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죠. 이후 홍인 대사가 혜능 대사를 방으로 불러 〈금강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 해줍니다. 혜능 대사는 그때 완전한 깨달음을 얻죠. 깨달음을 얻은 스님은 “일체만법이 나의 본래 성품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게송을 읊습니다. 깨달음을 얻고 보니까 자신의 자성, 본마음이 본래 청정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화엄경〉 첫 구절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풍경과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성도하고 땅을 보자 땅은 견고하여 다이아몬드 같았으며, 보리수는 보석으로 되어 있었고 가지와 잎들은 무성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부처님일 겁니다. 이 장엄한 깨달음의 경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 “‘선명상’ 연기법에 기반해 ‘크기’에 비례하는 분별심 ‘제로 마음 상태’ 이르러야 밝고 청정한 ‘본성’에 계합”

세 번째는 대신심(大信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육조 혜능 대사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화엄경〉 ‘정행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이하고 기이하구나. 일체 모든 중생이 여래와 같은 지혜와 덕성이 있건만 분별 망상으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저는 이 문장이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마 대사도 “중생과 성인은 동일한 진성을 가지고 있다. 객진번뇌로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를 없애려고 한다면 앉아라”고 했습니다.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살펴보면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본래부터 밝고 신령스러워 잠깐도 생멸한 적 없다.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다”고 나옵니다. 우리의 본래 성품은 밝고 신령스럽다는 표현입니다. 〈육조단경〉을 보면 우리의 본래 성품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라고 했습니다. 무념, 분별하기 전 마음은 고요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평화롭습니다. 무상은 어떤 대상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봐야 하는데, 자꾸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로 인해 잘못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본다면 모든 순간이 행복해집니다. 무주는 ‘나’라는 생각, 특히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입니다. 자성(自性), 본마음은 고요하고 생생히 살아있고 자유롭습니다.

이제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태국의 고승 아잔 차 스님에게 〈마음〉이라는 두꺼운 책을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책에는 “마음은 아무 잘못된 것이 없다. 마음은 특별한 것 없이 깨끗하고 마음 안은 이미 고요하다. 그렇지 못한 것은 감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고 합니다. 달마 대사의 〈혈맥론〉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 마음, 마음이여 알 수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옹졸할 때는 바늘 하나 꽂을 자리 없구나.” 너그러운 마음은 나의 본심이고, 옹졸한 마음은 본심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옹졸한 마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항상 이 너그러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선명상’에서는 연기법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서로 얽혀 있는 인연의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없어집니다. 기쁨이 생기면 슬픔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분별합니다. 호오(好惡)처럼 두 가지를 비교하고 차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감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과거의 경험, 지식, 정보로 상황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서 탐진치(貪瞋癡)가 일어납니다. 모든 분별하는 것에는 ‘크기’가 비례합니다. 1만큼 좋아하면 1만큼 싫어하죠.

그런데 ‘제로’인 마음 상태가 있습니다. 제로 상태일 때, 그게 바로 본성입니다. 그래서 늘 제로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제로의 마음을 챙기는 것이 ‘선명상’입니다.

이제 선(禪)의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사조 도신 스님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승찬 스님은 해탈시켜달라는 도신 스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묶어놨느냐.” 여러분들도 늘 구속됐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누가 여러분을 속박했습니까? 돌이켜 비춘다, 반조(反照)해 보십시오. 아무도 속박한 이가 없습니다.

도신 스님의 가르침 중 하나가 ‘수일불이(守一不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학교 가기 전 들판에다 말뚝을 박고 메워두면 하루 종일 그 주변의 풀을 먹어요. 소가 어디 가지 않고 말뚝 주변만 돕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는 말뚝이 필요하죠. 그러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수일불이’고 바로 간심(看心)이고 화두를 드는 기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려시대 나옹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양주 회암사에 계실 때 많은 스님들이 나옹 스님과 공부하기 위해 절로 모여들었습니다. 대웅전에 설법을 마친 나옹 스님은 대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설법을 듣는 자 누구냐, 말해보라. 보고 아는 주인공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음도 아니오, 부처도 아니오, 한 물건도 아닌 이것은 무엇인고.”

가장 깊고 강력한 의문이 바로 ‘화두’입니다. 이 의문을 품고 있으면 늘 자기 마음을 챙기게 됩니다. 그 마음이 지속이 되면 마음챙김은 물론 삼매도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결국 자기 본성과 계합하게 됩니다. 화두를 챙기면 본성을 챙기게 됩니다. 본성을 챙기는 것이 곧 ‘선명상’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5학년도 학점 은행제 신(편)입생 모집안내

(교육부 학위 인정 교육기관)

옥천범음대학은 중요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 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 향 천

■응시자격 | 수 료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편 입 학 과 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 료 과 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3매

■전형일정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5년 3월 첫째주 3월 4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범어사 청년회 '금어' 창립…"청년포교 앞장"

1월 18일 보제루서 발족식
6년 간 단절된 청년회 복원
호국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20~45세 청년 46명 참여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는 1월 18일 경내 보제루에서 '21세기 범어사 청년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금정총림 범어사가 청년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발족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수행 공동체로 서로를 위한 도반이 될 것을 서원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월 18일 경내 보제루에서 '21세기 범어사 청년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발대식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과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박경희 중앙부회장,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서영란 범어사 청년회 금어 회장과 회원이 동참했다. 발대식은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청년회 발대선언 및 서약서, 격려사, 인사말, 축사, 회장 인사말 및 활동계획, 임명장 수여, 소원지 달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범어사 청년회는 지난 6여 년 동안 활동이 단절돼 중추적인 역할이 없는 상황이었다. 범어사는 포교 및 청년 세대에 불교 전수를 목표로 청년회를 새롭게 창단, 발족했다.

범어사 청년회는 발대선언을 통해 수행과 정진을 통한 내면의 성장을 다짐했다. 이어 호국의 정신을 담은 문화 행사나 예술 활동을 통해 호국불교 사상을 전하고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 활동을 통한 자비 정신을 실천한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 무료 급식,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년회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불교 화엄사상의 가르침을 실천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 서원했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현재 20세에서 45세의 청년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46명의 청년 불자들이 가입했다.

서영란 청년회 회장은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보시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닦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과 함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데 있다"고 다짐을 전했다.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불교 청년은 불교에 있어서 현재이자 미래이다. 오늘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청년회 금어의 여정이 늘 화합과 자비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원력으로 대한불교 청년회의 시작점인 범어사 청년회가 재창립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국에 새로운 청년회가 발족하는 시작점의 중심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부산불교, 설날 맞아 자비나눔 '풍성'

지역불교연합회 · 사찰 설 명절 나눔 이어

명절 맞아 소외 이웃 위해
전기매트 등 후원물품 전달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전개됐다. 사진은 동래구불교연합회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후원 나눔이 줄을 이었다. 부산 불교 구·군연합회 및 사찰은 명절에 외로움을 느낄 소외 이웃을 위한 후원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월 22일 동래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설맞이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전기매트와 백미(6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지역 내 소외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했다. 전기매트는 저소득 계층 43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백미는 동래구노인복지관에 후원한다.

전달식에는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 법관 스님, 총무국장 지운 스님, 재무국장 성화 스님 등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장 자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으로 설날이 더욱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많다"며 "저희 연합회의 성금이 그분들에 온기가 되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설날을 맞아 떡국떡을 전달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사하구보훈회관에서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하구불교연합회는 230여 어르신에게 떡국떡 130g, 총 300kg을 전달했다. 이어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에게 공양을 대접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회장 혜원 스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시고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1월 17일 남구청에서 '부산남구불교연합회 설맞이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남구불교연합회는 자비의 쌀 3710kg과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며 설날을 맞아 소외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전달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능후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부총장 혜광 스님 등이 동참했다.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은 "추운 겨울에 명절을 맞는 소외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다만 적은 양인거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원장 정경국원)은 1월 17일 부산 연제구청장실에서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상임원장 정경국원을 비롯해 부산정사 영준국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신뇨엔은 이날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독거노인 50명에게 각 10만원씩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정경 국원은 "을사년 신뇨엔 정진 목표인 '자애의 이타행'을 실천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절 한번에 '나' 내려놓고 '부처님' 만나다"

봉녕사 3기여성출가학교 1보1배
1월 20일 금탑서 대적광전까지
2시간 동안 일보일배 3회 정진


수원 봉녕사 제3기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는 1월 20일 경내 금탑부터 대적광전까지 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일보일배 정진에는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과 봉녕사 사중스님들, 입교생 11명과 봉녕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삼귀의를 봉독한 입교생들은 금탑을 3바퀴 돌며 일보일배를 진행했다. 입으로는 "나무석가모니불"을 외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며 대적광전으로 나아갔다. 대적광전에 다다른 입교생들은 '칠정례' '이산혜연선사발원문' '반야심경' '사홍서원'을 독송하고 일보일배를 회향했다.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법문에서 "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자성불(自性佛)을 만나는 과정"이라며 "우리가 걸음 걸음마다 석가모니불을 부르짖는 것은 이 사바에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나의 참성품을 찾기 위한 절규의 목소리인 것이다"고 설했다.

한편, 제3기 여성출가학교는 1월 25일 회향식을 봉행한다. 김민재 기자

범어사 성보博, '박물관문화재단상' 수상

전국 160곳 중 3곳 선정…사찰박물관 유일 수상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공모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상을 수상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ICOM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은 지난해 1월 초부터 대표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국 160개관이 응모한 1차 서류심사(55개관 선정)와 2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최종 선정 기관 가운데 11월 26일 우수관으로 선정,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관 시상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3곳만 우수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

한편, 지난 1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속 유길상 실장이 '박물관·미술관 업무추진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동안거 대중공양

1월 16일 100인 분 공양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1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갑진년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사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안거를 맞아 법화경 독송 수행으로 재가 안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동안거를 맞아 부산지역단 34개팀은 법화경을 2회씩 독송 수행하고, 수행 기간 동안 십시일반 후원했다. 동안거를 맞아 올린 대중공양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소속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포교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대중간을 방문해 직접 공양 음식을 만들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은 다채로운 채식 메뉴 100인분이다.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은 "안거마다 포교사단 단원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을 회향하며 올리는 공양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포교사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포교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주지 총회

1월 21일 천안 태학사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이 교구 주지총회와 종회를 열고 2025년 교구 발전을 다짐했다.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원철 스님, 관음사)는 1월 21일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 대웅전에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주지총회 및 종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종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종무원장 인사말 △종회의장 인사말 △중앙원로의원 인사말 △발전기금 전달 △표창장 시상에 이어 2025년 세종충남교구 규약 규정 공포 및 을사년 행사 및 기타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충남교구 종무원장 원철 스님, 지방종회의장 청공 스님, 중앙원로의원 동우 스님, 지방원로의원 경허 스님, 종무부원장 송봉 스님, 지방종회 부의장 혜륜 스님, 지방선관위원장 금당 스님, 재무국장 해공 스님, 규정국장 도의 스님, 사회국장 법인 스님, 문화국장 중관 스님을 비롯한 교구 회원스님들이 동참했다.

원철 스님은 "기도 정진과 보살행으로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처님 품 안에서 교구를 이끌어 가자"며 "을사년에는 교구 내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종도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자문팀 활성화, 연수교육 및 수륙재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 교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동우 스님은 300만원을 교구 발전 후원기금으로 쾌척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부민노인복지관, 2025년 신년하례

1월 22일, 관내 대강당서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부민노인복지관(관장 정수홍)이 1월 22일 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2025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신년하례는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년하례에는 상임이사 하림 스님(미타선원), 공한수 서구청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새해 덕담을 직접 쓰고 게시하는 퍼포먼스와 지역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각 세대가 어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영상편지를 시청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또한 부민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2025년 복지관 운영계획을 공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상임이사 하림 스님은 "올 한 해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부민노인복지관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덕담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聯 '제6회 연합합창제'

2월 16일 부산영화의 전당서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2월 16일 오후 3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공연 주제는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이며, 보리수어린이합창단(제주 불교 보리왓), 종소리소년소녀합창단(종문사),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부산 혜원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청소년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등 전국 사찰 소속 어린이합창단 10곳이 참여한다.

공연은 창작 찬불동요와 연주,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마지막에는 참여 합창단이 동시에 무대에 올라 연합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회장 영산 스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에 푸른 날개짓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며 "저마다 동심을 노래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로 전할 이번 합창제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한량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자리이타'행으로 용인불교 발전 견인"

용인불교사암聯 회장 정호 스님 취임법회

1월 18일 호국선봉사서 봉행
사부대중 600여 명 운집 '축하'
자광대종사 신년특별법문 설해
전 회장 법경스님 공로패 전달

용인=신중일 기자

"불교의 힘은 자리이타(自利利他) 대승보살행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라'는 대승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용인불교사암연합회는 불자들은 물론 용인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한 용인 대각사 회주 정호 스님은 취임 일성으로 '대승보살행'을 강조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는 용인불교사암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8일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호국선봉사에서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용인불교사암연합회 현 회장 정호 스님, 전임 회장 법경 스님, 초심호계위원 법진 스님 등 지역 및 종단 주요스님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600여 명이 참석했다.

자광 대종사는 신년특별법문을 통해 자기 자신의 공덕 창고를 가득 채울 것을 대중들에게 제언했다.

자광 대종사는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일삼는 게 아니라 하나된 세계 속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이다. 이 같은 보살행을 계속하면 공덕 창고에 공덕이 계속 쌓이고 이것이 넘쳐 터지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며 "성불은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중생이 부처로 향하는 길"이라고 설했다.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정호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전 회장 보경 스님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화합하는 사암연합회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정호 스님은 "출가자가 지켜야할 마음가짐 중 하나로 '유화선순'이 있다. 부드럽고, 화합하고, 선하고, 순수한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라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존경과 배려의 마음으로 화합과 질서가 바로잡힌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1월 18일 열린 '용인불교사암연합회장 이 · 취임법회'에서 신임 회장 정호 스님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혼자서는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회원스님, 신도 여러분이 활기찬 용인불교, 자랑스런 용인불교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푸른 뱀, 청사(靑蛇)의 해를 맞아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뱀처럼 용인시도 올 한해 다양한 변화 속에서 거듭 발전해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전임 회장 법경 스님은 이임사에서 "신임 회장 정호 스님은 포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복지와 다문화 활동 등으로 이미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신 훌륭한 스님"이라며 "앞으로 용인불교사암연합회가 종교로서의 불교를 넘어 시민들에게 정신문화적 안식처가 되어 110만 용인시민과 함께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저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임사 직후 자광 대종사는 법경 스님의 노고를 치하하며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사회가 혼란하고 나라가 어려워도 우리들 마음 속에는 자비심의 불씨가 있다"면서 "용인불교계가 그 불씨를 잘 지켜주시면 용인특례시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천안불교사암聯 제14대 회장에 도언 스님

1월 18일 만수사 대웅전서
"시민과 함께하는 전법할 것"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1월 18일 천태종 만수사 대웅전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및 진산식 법회'를 진행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제14대 회장에 천태종 만수사 주지 도언 스님이 취임했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월 18일 천태종 만수사 대웅전에서 '제14대 회장 취임 및 진산식 법회'를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광덕사 주지 철웅 스님, 천불사 주지 인경 스님, 양천사 주지 인봉 스님, 연대선원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한 연합회 회원스님들과 정효숙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 수석부단장을 포함한 포교사들과 이정문 국회의원,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및 지역 기관장들, 김명환 만수사 신도회장, 윤학명 각원사 신도회장, 한진우 각원사 불교대학 총동문회장, 지역불자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연합회 총무 태학사 주지 법연 스님의 사회로 시작된 법회는 △삼귀의례 △찬불가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 융창 기원 △만수사 신도회장 인사말 △취임사 △축사 △내빈소개 △축가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회장 도언 스님은 취임사에서 "불교도 시민들과 함께하며 일상에 지친 이들을 어루만지는 도심 속 포교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실제로 초파일과 초하루 및 보름에만 찾던 산사에 사람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일상의 재충전을 위해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초파일 등 연합회 행사 등 중점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우수한 포교사례 등을 활성화해,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천안불교사암연합회 원로위원 인경 스님은 "천안 불자들도 신임 회장 스님과 힘을 모아 모든 사업 계획들이 성취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날 천안불교사암연합회는 포교사단 대전세종충남지역단에 후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온 가족이 즐기는 '어린이 명상캠프'

백양사 1월 18~19일 개최
오감, 알아차림 명상 등



고즈넉한 사찰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명상 캠프가 개최됐다.

조계종 제18교구본사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는 1월 18일부터 이틀간 경내에서 '백양사 어린이 겨울명상 캠프'를 열었다.〈사진〉

'백양아이 명상캠프, 궁금해?'를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에는 어린이 51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입재식에 이어 △오! 센스명상 △종을 울려라 △불멍의 미학 △우리는 하나 1·2 △어린이 수계식 등으로 진행됐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명상 호흡 실습과 더불어 자신과 짝꿍의 작품을 보고 명상한 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에 딸기를 두고 한 '보기·맡기·만지기·먹기 명상'은 어린이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회향사에서 "지난 이틀간 어린이 여러분 덕에 밤에도 백양사가 환하게 빛나 행복한 기운이 넘쳤다"면서 "백양사가 여러분 마음에 오래도록 행복한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지도법사 형진 스님(광주 연화어린이집 원장)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하는 '오감 명상'을 통해 아이들이 현재에 집중하며 스스로 안정을 느끼길 바랬다"며 "또한 '감사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도 체험하게 했다"고 말했다.

캠프에 참여한 장명서(초6) 어린이는 "학교를 다니며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캠프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특히 '알아차림'과 '감사'에 대해 고민해도고 배울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창 선운사, 성원 대종사 43주기 추모재

1월 18일, 경내 대웅보전서
2025년 1차교구종회 개최도



화엄종주의 교지를 잇고 백양사·대흥사·불국사 강주를 역임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 43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사진〉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는 1월 18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대강백 운기당 성원 대종사 열반 43주기 추모재'를 열고 대종사가 남긴 유지를 이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대우·법철·선일 스님 등 운기당 문도스님들과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중앙종회의원 재안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죽비3배에 이어 △행장소개 △종사영반 △분향 및 헌다 △입정 △문도 대표 인사말 △공지사항 순으로 이어졌다.

행장소개에 따르면 운기당 성원 대종사는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선운사 주지와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했다. 교육에 전념하던 대종사는 1982년 세납 84세, 법랍 68세로 입적했다.

대우 스님은 문도를 대표한 인사말을 통해 "정성을 다해 은사스님의 43주기 추모재를 준비해준 경우 스님을 비롯한 선운사 대중스님들에 감사하다"며 "은사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앞으로도 더욱 수행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같은 날 선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불기 2569년 1차 교구종회'가 개최됐다.

총무국을 비롯한 교구 현황보고와 2024년 결산 심의, 2025년 분담금 배정 및 조정, 전주 포교당 건립 특별분담금 지정, 기타 안건 등에 대해 토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창원불교聯, 이웃사랑 자비나눔법회

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서
취약계층에 3200만원 전달해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와 (사)금강자비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이웃을 위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창원불교연합회(회장 법안 스님. 성주사 주지)와 (사)금강나눔자비회(이사장 진정혜)는 1월 2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제34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는 창원불교연합회 회원사찰과 창원특례시, 한마음병원, 세창공업(주)의 후원과 협찬으로 자비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창원이웃사랑자비나눔행사는 지난 1991년 시작돼 33년간 저소득층 가정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게 약 15억원의 자비성금을 전달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75세 이상의 독거노인 40명과 한부모 가정 고등학생 40명에게 자비성금 3200만원이 전달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화엄사, 제3회 전통사경원 회원전

2월 28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서



조계종 제19교구본사 지리산 대화엄사(주지 덕문 스님)이 2월 28일까지 경내 성보박물관에서 '제3회 화엄사전통사경원 회원전'을 개최한다.〈사진〉

'墨香萬里(묵향만리), 전통사경 천년의 숨결 화엄세상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화엄변상도, 반야심경, 약찬게 등 사경원 회원 18명이 직접 필사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산하 화엄불교대 36기 졸업식

1월 27일, 전북불교회관서



화엄불교대(학장 화평 스님, 금산사 주지)와 화엄학림원은 1월 27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화엄불교대학 제36기·화엄학림원 제28기 졸업식'을 개최했다.〈사진〉

화평 스님은 화엄불교대의 전 과정을 마친 졸업생 여러분에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도사인 동시에 이타적 삶의 실천자, 보살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불교종단協, "울산 정신문화 선도"

1월 21일 신년인사회서



울산광역시 불교종단협의회(회장 혜원 스님)가 1월 21일 울산 해남사 보광당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열고 "울산의 정신문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사진〉

울산불교종단협의회장 혜원 스님은 신년사에서 "태화사지 복원, 차문화전승관 건립, 국제선센터 개원 등 울산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안 쌍봉사, 소외계층 위한 설 음식 나눔

1월 18일, 지역 120가구에



매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밑반찬 나눔 봉사를 진행하는 진안 쌍봉사 보경 스님과 반찬봉사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진안읍 소외계층을 위한 명절음식 꾸러미를 전달했다.〈사진〉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스님)는 1월 18일 쌍봉사 반찬봉사단과 함께 '설 명절음식 꾸러미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붓다, 설맞이 지역 떡국 나눔

300인분 소외계층 위해



(사)붓다(이사장 진성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가 1월 23일 전주 붓다복지관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역민에게 떡국 나눔을 펼쳤다.〈사진〉

이날 나눔 행사를 위해 복지관 봉사자들은 밤새 육수를 고아 준비된 가래떡 80kg으로 떡국을 만들었다.

현진 스님은 "힘든 시기에 맞이한 설 명절이지만, 새해 희망을 기원하며 떡국을 드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빨리·산스크리트 비구 교류 프로그램 '성료'

달라이라마 제안 개최
두 승가 간 교류 목적
성지순례 · 교육 등 다양

박영빈 객원기자


빨리-산스크리트 비구 교류에 참석한 스님들. 사진출처=주최 측 제공

부처님의 성도성지 보드가야에서 개최된 '제3차 빨리·산스크리트 국제 비구 교류 프로그램'이 마무리됐다. 티베트 불교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개최된 프로그램은 서로 중립적으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빨리·산스크리트'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진행된 행사는 빨리 전통의 남방 테라와다 불교 스님들과 산스크리트 전통의 대승불교 스님들이 서로의 문화와 교육체계에 대해 토론하는 장이었다. 한국 측에서는 삼학설행사의 남카 스님이 전 일정에 참석했고 조계종 교육위원 금강 스님이 일부 일정에 참석했다.

프로그램 전반부는 보드가야에서 진행됐다. 빨리와 산스크리트 승가는 성도성지 마하보디사찰을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와 기도, 명상을 함께하며 부처님 제자로서 동질감을 확인했다.

지난해 12월 25일에는 티베트 불교의 위인 쫑카빠 대사의 열반일 '간댄응암최'를 기리는 기도회가 왓 타이 부다가야 대법당에서 봉행됐다. 두 승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사의 공덕을 찬탄하고 위업을 기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서양불자는 "테라와다 불교를 대표하는 태국사찰에서 티베트 스승을 기리는 기도가 퍼지는 모습은 정말 깊은 감동을 줬다"며 "두 전통 승가가 화합하는 모습이 가시적으로 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새해 1월 1일에는 한국 삼학설행사 측이 두 승가의 80여 스님들에게 대중공양을 올렸다. 공양의 시작과 끝에서 각각 빨리어와 티베트어로 서로의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를 기원하는 기도도 이어졌다.

후반부 일정은 1월 5일부터 남인도 간댄사찰에서 이뤄졌다. 주로 산스크리트 승가가 빨리 승가에 강원교육체계, 수행지도방식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율장에 대한 전문적인 토론과 논의에서 적극적인 참여율이 돋보였다. 한국 측에서는 승보종찰 송광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연옥 스님과 전 총무국장 연광 스님이 동참했다.

연옥 스님은 "두 승가의 교류는 한국의 많은 스님들이 반기는 일"이라며 "남방불교계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은 정말 소중했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전체 총괄을 맡았던 진빠 갸초 달라이라마 사무국 비서는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스리랑카, 태국, 티베트와 한국스님들 외에도 일본, 대만,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등 다양한 불교권에서 이미 다음 회차 프로그램 시기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UC버클리, 불교경제학 기반 기후사회연구소 설립

불교 가치 · 경제 통합적 접근
'지속가능성' 중심 정책 개발


US버클리대의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미국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대(US Berkeley)가 불교경제학을 기반으로 한 기후사회연구소(Climate and Society Center)를 설립해 주목받고 있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1월 14일 버클리대 기후사회연구소 설립 소식을 전했다. 버클리대의 고용노동연구소(IRLE) 중심으로 설립된 기후사회연구소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복지 향상을 목표로 기후정책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후사회연구소는 클레어 브라운(Clair Brown) 경제학 교수와 줄리아 월시(Julia Walsh) 공중보건학 교수가 이끈다. 이들은 기존 경제 체제의 한계점을 타계할 불교적 대안을 모색한다.

브라운 교수는 2017년 출간한 저서 〈불교경제학 : 침울한 학문에 대한 계몽적 접근〉을 통해 기존 GDP 중심 경제 성장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경제 지표로 △행복과 웰빙 △소득 분배의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제안했다. 경제를 단순한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닌 사회적 상호의존성과 이타심, 환경 존중이라는 가치에서 바라보는 접근으로 주목받았다.

브라운 교수는 "경제 체계는 공동체와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불교경제학은 기후 위기와 복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나 폭스-호데스 IRLE 대변인은 "연구소는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리치먼드시의 석탄 수출 중단 법안의 경제·환경적 영향 분석은 법안이 통과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새롭게 설립된 기후사회연구소의 활동 역시 기후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 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 정책 사례를 전산화하는 작업 중이다. 뒤이어 환경 및 경제적 순이익을 분석해 입법 제안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석유·가스 시설과 주거 지역 간 완충 구역 설정' 정책 분석을 첫 프로젝트로 다룬다.

버클리대 관계자는 "기후사회연구소는 탄소 배출 감소와 함께 취약계층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기관과 협력해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연구소 설립은 불교경제학의 원칙을 기후정책에 반영한 독창적 시도로 기후 변화와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印 타밀나두에 첫 불교박물관 설립된다

과거 불교사찰 부지에
촐라시대 불교유산 전시


타밀나두 첫 불교박물관이 들어설 부지. 사진출처=더 프린트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촐라시대(9~13세기) 불교유산이 모인 불교박물관을 나가파티남에 설립한다. 인도 매체 '더 프린트'는 1월 15일 나가파티남의 첫 불교박물관 설립 소식을 전했다.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은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과 유물을 전시할 예정으로, 불교와 타밀나두의 역사적 연관성을 조명한다.

타밀나두 나가파티남은 불교의 주요 중심지였으나 16세기 이후 쇠퇴해 자취를 감췄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불상만 약 350점으로 일부는 런던과 독일 등 해외에 보관돼 있다.

타밀나두 주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가파티남에서 발굴된 불상 중 약 30점이 첸나이박물관에 보관돼 있고 이외에도 분산된 유물을 모으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2022년부터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 설립을 제안했던 샤나바스 주의원은 2023년 고고학조사국(ASI)과 조사 작업을 통해 지역 내 19곳에서 불교유적을 확인했다.

그는 과거 불교사찰이었던 나가파티남 지방법원 복합 건물 부지를 박물관 부지로 제안하며 "해당 부지는 촐라시대 주요 불교사찰이었던 추다마니 비하라의 역사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물관 설립 계획은 올해 2~3월 중 예정된 주의회 예산 회기에서 공식 발표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계 관계자들은 나가파티남 불교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고향의 역사를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몽골불교 대표단,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담

대담 後 유럽 불교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 자브잔 도르지 스님. 사진출처=간단사찰 공식 페이스북

몽골불교 대표단이 로마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담을 가졌다. 1월 17일 '바티칸 뉴스'는 대담 소식을 전하며 교황이 몽골불교의 부흥에 찬사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몽골불교 대표단은 1월 13일 교황을 만나 종교의 자유, 바티칸과 동아시아 국가 간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대표단은 몽골불교 총본산 간단사찰의 방장 자브잔 도르지 스님을 단장으로 해 몽골 가톨릭계 조르지오 마렌고 추기경과 동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9월 몽골을 방문해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한 교황이 됐다. 몽골불교 대표단의 방문 대담에서 교황은 "이번 만남을 통해 몽골 귀빈들과 가톨릭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교황은 "1990년대 이후 몽골불교계는 영적 전통을 되살리며 국가발전에 기여해 종교유산을 되찾고 성공적인 민주주의 전환을 위해 헌신했다"며 상찬했다.

또한 교황은 "갈등으로 점철된 이 시대에 희년은 더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라는 공동의 목표를 요구한다"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의 문화를 끌어안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자브잔 도르지 스님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종교 간 자유와 대화를 향한 노력은 평화와 진리를 추구하는 연대"라는 뜻에 공감하고 서로 간 우호적 관계 형성을 약속했다.

몽골불교 대표단은 로마 바티칸 방문 이후 유럽 각국의 종교학 연구소와 현지 몽골이민자 공동체, 불교공동체 등을 방문하며 학술·문화 교류를 증진한다.

박영빈 객원기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충청지사	유재상		H 010-8341-0560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국립중앙博, 올 10월 보존과학센터 개관

김재홍 관장, 1월 20일 '주요 업무계획' 발표

불교문화유산 등 복원·연구 강화
대형 CT 장비로 목조 연대 측정
약사삼존도 등 조선 미술 특별전
불교미술 10여 점 국내 최초 공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10월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해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관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불교문화유산의 정밀한 복원과 연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1월 20일 관내 교육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이자,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을 4대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국립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문을 연다. 보존과학센터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이다.

현 보존과학실 면적 대비 5배 확장해 건축 연면적 9,196㎡,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3D 스캔 및 디지털 형상복원실, 재질별 보존처리실, 분석실, 환경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관과 함께 대형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구비해 불상 등 목조 문화유산의 연대를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그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분야는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만으로도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계기로 국·공·사립·대학박물관과 국외 박물관 한국실 소장품 보존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홍 관장은 "처음으로 보존과학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됐다. 시대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시설을 강화하고, 1층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직접 눈으로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은 올해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한 대규모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6월 열리는 '조선 전기 미술' 특별전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전개된 미술 혁신과 변화를 조명하는 전시로, 약사삼존도·백자항아리·사시팔경도 등 3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외 76개 기관 소장품이 출품되며 이 중 불교 관련 작품은 100여 점이다. 일본 불화 등 10여 점은 국내 최초 공개되는 작품이다.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에 대한 다각적 연구도 이뤄진다. 지난해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 145건 171점의 판독 및 해제 연구에 이어 올해는 중앙박물관 소장 북한지역 승려비 탁본 80여 점을 활용한 심화 연구에 돌입한다. 승려비의 형태와 비면 구성의 특징에 집중해 시기별 승려비 형식과 형식 변천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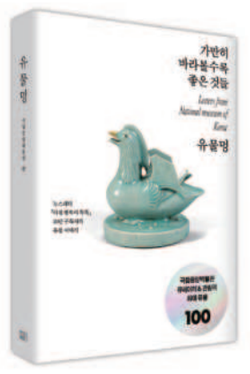
김재홍 관장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연구 방법론을 융합한 심층 연구로, 창조적인 K-콘텐츠를 발굴·생산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밖에도 올해 △특별전 '이순신'(11월~내년 3월)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7월~12월), 심화 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8월~10월) △최초의 이슬람 문화 상설전시인 '이슬람실'(11월~내년 11월)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4월~9월) △특별전 '인상주의' (11월~내년 3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일본미술의 재발견'(6월~8월/중앙박물관), '한국미술의 보물상자'(2월~4월/도쿄국립박물관) △덴버박물관 특별전 '달의 위상, 한국의 달항아리'(3월~6월)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100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3월~8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11월~내년 2월), 시카고박물관(26년), 영국박물관(26년~27년) 등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물멍·불멍 이은 최애유물 100점 '유물멍'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멍: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반가사유상 · 토우 · 찬한 등
큐레이터 뒷이야기도 포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이 큐레이터와 관람객이 선정한 '최애 유물' 100점을 수록해 기획 단행본 '유물멍: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사진〉을 발간했다.

'유물멍'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아침행복이 똑똑(2020년~2024년)'에서 시작됐다. 필진은 큐레이터와 각계각층 관람객들로, 이들이 유물을 바라보는 솔직하고 다양한 시선이 내용으로 담겼다. 구독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단행본 편집진은 총 400회에 걸쳐 발행된 뉴스레터 중 다채로운 조형미를 가진 유물과 개성 넘치는 글 100건을 선정해 책에 수록했다. 달항아리, 반가사유상, 금동대향로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물을 비롯해 토우, 찬합, 진묘수처럼 친근하고 소박한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부록에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가 쓴 유물 감상법과 전시 뒷이야기도 선보인다.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의 묘' '작은 세상 속 토우' '생각하는 불상, 반가사유상' '괘불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등 총 4편의 글에 전문가의 쉽고 친절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행본은 각 유물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배치하고 유물명, 시대, 출토지 등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유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유물'과 '멍'을 모티브로 그려낸 11점의 일러스트 스티커도 함께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멍'은 대중과 소통에 도전한 첫 번째 기획 단행본으로, 유물 감상의 문턱을 낮추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통상 주제나 기법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물의 빛깔별로 모아 독자에게 새로운 감상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 고승 생애 담은 비문 속 '이체자' 망라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체자 서체 자전' 발간

'고대 · 고려 편' 이어 '조선 편'
비문엔 고승 일생 새겨져 있어
불교계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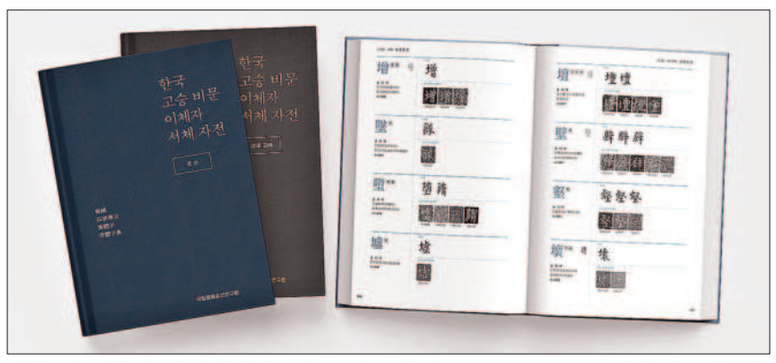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이 우리나라 고승들의 비석에 새겨진 이체자(異體字)를 정리해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을 발간했다. 2023년 발간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의 첫 번째 책자 '고대·고려 편'에 이어, 두 번째 책자인 '조선 편'이다.

이체자는 흔히 정체자(正體字)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한자의 일부 획수를 줄여 간단히 한 약자(略字)나 관습적으로 한자의 자획을 약간 달리해 쓰는 속자(俗字)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런 이체자는 고승 비문뿐 아니라 묘지명(墓誌銘), 사리기(舍利器), 목간, 역사서 등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당시 사용된 문자의 경향성과 시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사 자료로 기능을 한다.

예로부터 고승이 입적하면 왕실이나 제자들은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스님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일생과 제자·문도(門徒)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당시 불교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이번 자전에는 고승 비문에서 확인된 이체자를 서예로 작성해 수록했다. 비문별로 이체자의 서체 용례를 탁본이나 사진으로 삽입해 같은 글자지만 다양하게 표현된 서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이체자에 대한 정체자는 음과 뜻, 부수, 총획수 등의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고대 · 고려, 조선 편) 사진출처=국가유산청

총 2권(고대·고려 편, 조선 편)의 자전에 수록된 고승 비문은 고대·고려시대 63건, 조선시대 160건이다. 이체자는 고대·고려시대 3076자, 조선시대 3683자이며, 서체 용례는 각각 7268건과 8050건이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지속가능한 미식에 적합"

김유신 문화사업단 종무관
1월 16일, 사찰음식 재조명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무관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무관〈사진〉이 1월 16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97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지속가능한 미식으로서 사찰음식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지속가능한 미식관광과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신 종무관은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0%가 폐기되고, 기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의미,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지 등 음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음식의 가치확산 방안으로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소식(笑食)', 과식을 삼가고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는 '소식(小食)',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하는 '소식(蔬食)'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문세션에서는 지난해 문화사업단 주최 '2024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비롯한 10여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내영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 탐구!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역사상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여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안성두 지음/신국판/무선/396쪽/값 25,000원

원효가 구축한 불교사상의 전모를 보다
분황원효불교사상사
세계적인 불교사상가이자 철학자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영섭 지음/신국판/양장/832쪽/값 50,000원

온 세대가 함께 읽는 〈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깨달음의 여정을 담은 십우도를 현시대 흐름에 맞게 재창조하여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재미,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린 성장소설이자 SF/판타지 소설이다.
김태라 지음/사륙변형/양장/16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2~1/2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행복한화엄경:시공을너머핀꽃	정엄	리즈앤북	6	도표로읽는불교입문	이자랑,이필원	민족사
2	담마빠다(법구경)빠알리어직역	일아 옮김	불광출판사	7	여래장사상의원전(학술총서77)여래장경부증불감경승만경	이평개 역주강설	민족사
3	불교문화(조계종신도교재4)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8	도표로읽는경전입문	정운/배종훈 그림	민족사
4	붓다의향훈을따라서:인도네팔불교성지순례가이드북	대연스님	해조음	9	불교개설(조계종신도교재)부처님의가르침불자의실천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5	금강경역해:금강경산스끄리뜨원전분석및주해	각묵	불광	10	칸니명상:아니빠나삿띠와위빳사나수행의입문서이자안내서(명상:그자유로운길에서다)	수망갈라/차은숙	운주사

책세상

청소년포교 중흥…전법 60년 생생한 기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김재영 지음
운주사 / 2만5천원

김재영 법사 불교 인생 60년 회고록
어린 시절부터 80성상 기록 모두 담아
1970년 동덕불교학생회 창립 이끌어
개인사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 한 축



녹야원 초전법륜탑에서 정진 중인 김재영 법사와 불자들.



출판기념회에서 사인회를 진행하는 김재영 법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동덕불교학생회 창립, 1970년 당시 무진장 스님을 모신 창립법회에는 200명이 넘는 학생이 모여 삼귀의를 모셨다. 전국을 통틀어 불교학생회가 10여 곳에 불과했던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한국불교 청소년 포교에 불을 붙였다. 한 때 동덕여고 전교생의 절반이 동덕불교학생회 회원이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당시 동덕여고 역사 선생님이었던 김재영 법사가 있었다. 김재영 법사는 그렇게 전법 60년 인생을 시작한다. 청소년 포교의 새 장을 열었던 김재영 법사의 이름은 현대 한국불교사에서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니다. 최근에 김재영 법사의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가 출간됐다. 책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970년 7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시청각실, 볼일 많은 토요일 오후 시간, 청소년들에게 생소하고 인기 없는 불교~, 얼마나 모일까? 백여 개의 좌석은 채울 수 있을까? 손님 모셔놓고 창피는 안 당할까? 오후 2시, 시간이 가까워온다. 나도, 우리 아이들도 가슴 조이며 기다린다. 그런데 아이들이 몰려온다. 한 명, 두 명, 열 명, 백 명, 와~ 백 명이 넘었다. 시청각실 좌석이 꽉 찬다. 아이들이 계속 몰려온다. 나와 우리 아이들은 시청각실 앞에 있는 화학실 문을 열고 의자를 갖다 날랐다. 연단 바로 앞 공간까지 좌석이 꽉 찬다. 그래도 아이들이 몰려와서 좌석과 좌석 사이의 통로까지 완전히 메운다.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다. 2백 명이 넘는다. 와~ 2백 명이 넘는 눈푸른 소녀들~, 〈중략〉 유정애 김옥배 등 준비한 고3 아이들은 울고 있다. 속으로 속으로 소리 나지 않게 울고 있다.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온다."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는 김재영 법사의 어린 시절부터 80성상의 기록을 담고 있다. 특히 불교에 입문하여 활동한 불교인생 60년은 개인사를 넘어 현대 한국불교사의 생생한 기록이기도하다. 가족을 비롯한 개인적인 인연에서부터 선생님으로 재직하면서 만난 인연들과 불교활동을 하면서 만난 인연들, 그 소중한 인연들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진솔하게 담겨 있으며, 그 관계들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소회, 문제의식 등이 담겨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역사는 한국불교사와 함께 한다.

그의 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의 하나는 〈법구경〉과의 만남이다. 1967년 나이 서른에 만난 〈법구경〉은 그의 삶을 크게 바꿔놓았다. 회고록의 3장 '방황과 각성' 편에서 김 법사가 〈법구경〉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문제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공포와 괴로움으로 살고 있던 김 법사는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우연히 책 한 권을 보게 된다. 바로 〈법구경〉이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책 속에는 '길'이 있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서 간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김 법사는 갇혀있던 문제에서 풀려난다. 책은 "'죽음'이 빙산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다"라고 적고 있다. 불심 깊은 모친 슬하에서 자란 김 법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처님 그늘에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을 만나지는 못했다. 뒤늦게 부처님에 빠진 김 법사의 공부는 나날이 깊어갔고, 그 깊어진 부처님 공부는 학생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졌다. '전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었다. 부처님으로부터 선생님이 물들고,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이 물들고, 그렇게 물든 학생들이 모여 불교학생회가 된 것이다.

이후 김 법사의 전법·포교 불사는 그야말로 활발발한 일로를 걷는다. 청소년 포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교재 〈보리誌〉를 발행했고, 청보리학생회-청년회를 통한 청보리 운동은 1970~1990년대 한국불교의 중흥에 일조했다. 학교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김 법사의 활동은 활발하게 이어졌다. 광덕 스님의 평전을 집필하기도 하고, 국제구호단체 '자비수레꾼'을 창립하여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돕는가 하면, '빠리사학교'를 설립하여 수십 명의 전법사를 배출했다. 이렇듯 그가 현대 한국불교에 끼친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회고록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는 책이라기보다는 대작의 완성된 퍼즐을 보는 것 같다. 일기장의 육필처럼 문법 너머로 툭툭 던져놓은 문장들은 문장이라기보다는 그 날 그 날의 기억의 퍼즐 조각처럼 보인다. 특별한 문법 없이 차례차례 이어놓은 퍼즐 조각들이 한 권의 회고록을 완성한다.

"이 글은 내 개인사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로는 1970~1990년대 한국불교 현대사를 현장체험으로 리포트하는 것이고, '해탈' '열반' '불사(不死)' '한소식' '깨달음'의 허구적 관념덩어리를 부수고, '부처님 같이 살아가려고 애쓰고 애쓰는 보살은 빛나는 몸으로 다시 탄생하는 단순명료하고 생생한 무한생명의 메시지'를 현장상황으로 전하는 것이다."

책의 끝에서 김 법사는 말한다. "사랑하는 이 땅의 불자도반들~, 죽음 앞에서 다시는 헤매지 말고~, '나는 보살이다~, 세세생생 보살도~, 나는 빛나는 몸으로 다시 돌아와 동포들 함께 걷고 걷는다'~, 굳센 신앙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당당하게 함께 살아갑시다. 세세상행 보살도 구경원성 살반야 마하반야바라밀."

현대·미래 언어로 쓴 SF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김태라 지음
운주사 / 1만5천원

"여긴 정말 현실 같은 세계네. 용수가 레벨 1의 아이를 보며 말했다. 용수는 얼떨결에 이곳에 들어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내심 기쁜 마음도 들었다. 이제 자신에게도 할 일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자기 자신을 찾는 것. 용수는 가슴이 뛰었다. 얼른 아이를 찾아 자신도 당당히 여기서 나가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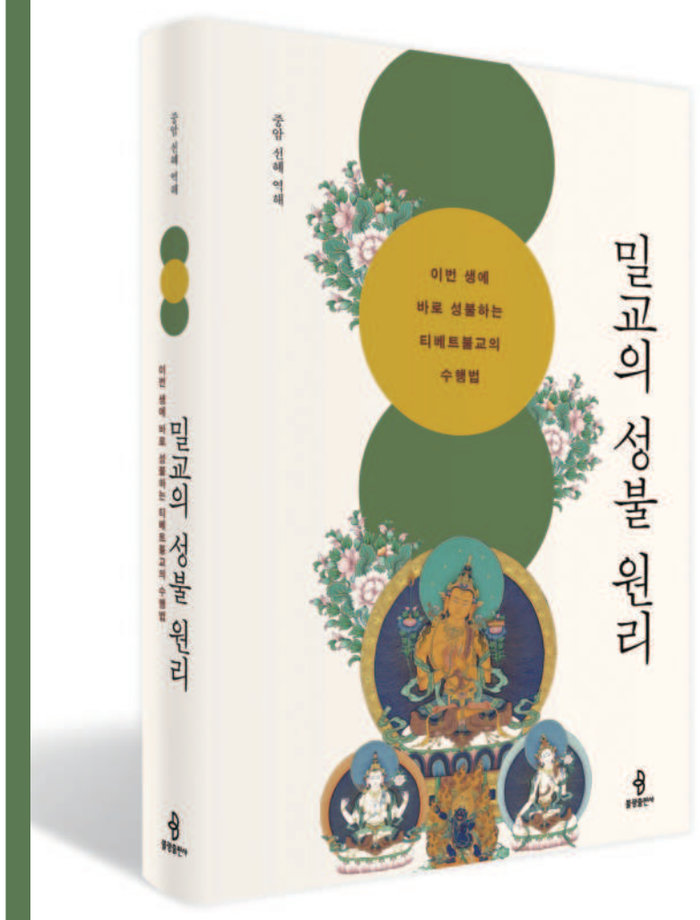
책 〈아이 찾는 아이〉는 십우도와 게임 메타버스를 결합한 SF소설이다. 인간 본성과 세계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을 다룬 철학적 소설이기도 하다.

심우, 견적, 견우, 득우, 목우, 기우귀가, 망우존인, 인우구망, 반본환원, 입전수수. 십우도의 열 단계다. 소를 찾아 속세를 떠난 주체가 소를 길들여 돌아온 뒤 소도 없고 나도 없음을 깨닫고 세상으로 돌아오는 내용이다. 소설은 이러한 십우도의 줄거리를 시대적 흐름에 맞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재창조했다.

목동이 소를 찾는 단계별 과정을 소년이 메타버스 속에서 활약하는 스토리로 바꾸고, 십우도의 중심 소재인 '소(牛)'를 '아바타'로 치환하여 주인공이 가상과 현실 세계를 넘나들며 모험을 통해 성장하는 이야기로 형상화했다.

작품 형식에 있어서는 십우도의 열 단계 구조를 기초로 하되, 각각의 단계들을 이야기의 장(章)으로 구성하고 세분화하여, 스토리텔링의 흐름 속에서 십우도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개현될 수 있게 했다.

십우도는 자체로 상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문학과의 결합을 통해 더욱 풍부한 의미를 생성·전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십우도에 관한 관심은 주로 수행의 측면이나 학문의 영역에서만 머물러 온 아쉬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소설은 십우도를 차용해 현대적 감각에 맞는 새로운 이야기로 형상화함으로써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존재와 세계, 그리고 인간 본성과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완 기자



밀교 수행 원리의 요점만 가려 모은 티베트불교의 수행 교재
『시이꾸쑴랍쌜된메(因位三身行相明燈)』

바로 이번 생에 깨달음을 얻는
티베트불교 금강승 수행 원리의 전모를 밝히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며 수행과 경론 번역에 매진 중인
중암 스님이 빚어낸 티베트불교 수행 비법의 모든 것

티베트불교는 현교와 밀교로 양분한다. '겉으로 드러난 가르침'인 현교는 소승과 대승불교를 가리키고, '은밀하게 전수된 가르침'인 밀교는 금강승(金剛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교를 어느 정도 익힌 수행자는 밀교인 금강승 수행에 들어간다. 현생에서 삼신(법신·보신·화신)을 모두 성취하여 보다 많은 중생을 빨리 제도하기 위함이다. 30여 년간 인도와 네팔에 머물면서 수행과 티베트어 경론 번역에 매진해온 중암 스님이 『시이꾸쑴기남샥랍쌜된메』의 티베트어 원전을 충실히 옮기고, 그 의미를 풀어내어 금강승 수행 비법을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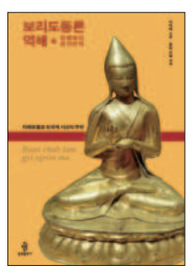
밀교의 성불 원리 이번 생에 바로 성불하는 티베트불교의 수행법
중암 선혜 역해 | 436쪽 | 양장 | 값 35,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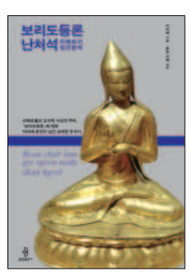
국내 최초 티베트어 원전 완역으로 만나는
티베트불교의 정수!



개정 완역
티베트 사자의 서
빠드마쌈바와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4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연
보리도등론 역해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해
368쪽 | 양장
25,000원



티베트어 원전 완연
보리도등론난처석
아띠샤 지음
중암 선혜 역주
592쪽 | 양장
40,000원

입으로만 하던 진언, 그 뜻도 알아야



한국불교의 상용진언 –단문편
정승석 · 연산(황갑수) · 성청환 지음
조계종출판사 / 3만2천원

한국불교 상용 진언 중 215개 선별
의미와 출처, 연원 등 본격 고찰해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 이해하고
불교 의례 연구 확장에 기여 기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운문사 새벽예불 모습.

진언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깊고 큰 뜻을 짤막한 구문으로 함축하기 때문에 진언을 번역하는 것으로는 부처님 법의 뜻을 결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일찍이 〈정법화경〉 '총지품'에서는 진언을 번역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축한 진언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수행과 신앙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상용진언〉은 한국불교에서 주로 상용되는 진언 중에서 215개를 선별해, 그것들의 의미와 출처, 연원 등을 고찰한 책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진언을 이처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출간의 의미는 작지 않다.

책은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 의례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책은 '진언·주·다라니' '용도별 진언 분류' '종자 일람'으로 구성했다.

△'진언·주·다라니'에서는 진언들을 명칭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진언을 표기한 한자와 우리말 독음은 한글 〈진언집〉에 의거해 표기했다. 그리고 진언의 범문을 고전 범어와 합치하는 표기로 전환하여 제시한다.

△'용도별 진언 분류'에서는 진언들의 기본 용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현재의 상용 의례에서 상용되는 진언들을 가급적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6가지로 분류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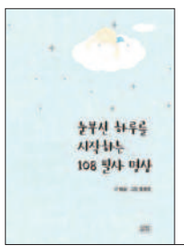
△'종자 일람'에서는 책에서 고찰한 진언의 용도에 국한하여 종자가 함축하거나 상징하는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불교에서 각종 재(齋)를 비롯하여 예불과 법회 등의 다양한 의식은 거의 예외 없이 주문을 읊으면서 진행된다. 사실상 불교의 규범적 의식에서 주문은 필수 요소이므로, 주문 없이 진행되는 의식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주문'은 세간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불교의 일반어로는 진언(眞言)이며, 이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라니(陀羅尼)이다. 진언과 다라니는 통틀어 '주(呪)' 또는 지혜라는 의미의 '명(明)'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미묘하게나마 구분할 수 있으나 그 구분이 그다지 엄밀하지 않다. 요컨대 주, 진언, 다라니는 장황하거나 다양하게 설명되는 진실을 간결하게 함축하여 일깨우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불교에서 진언은 글자 그대로 '진실한 말'인 만큼 반복하여 암송함으로써 그 말에 상응하는 효과와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언은 삼매의 경지에 몰입하는 관상(觀想)의 수단이다. 진언을 암송하는 것은 특히 부처님의 법을 진리로 기억하여 간직하는 정신 집중의 과정이다. 이 때문에 진언은 기억하여 간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다라니'로 불린다.

〈한국불교의 상용진언〉 출간의 의미는 그동안 진언의 해석이 무의미하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 대중의 의중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은 불교 의식에 참여하면 할수록 다라니, 즉 진언이 어떤 의미로 의식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이다. 진언들은 해당 의식의 전반적인 취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불설고왕관세음경주석〉에서는 이 같은 궁금증에 부응하는 예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대부분의 진언들에서 볼 수 있는 '사바하(娑婆訶)'는 범어의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불설고왕관세음경주석〉의 저자는 娑婆訶의 각 글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바하에서 '사'자는 언설이 없음을 의미한다. '바'자는 일체법이 평등함을 의미한다. '하'자는 일체법은 원인이 없고 적정하여 머무는 곳이 없으며 청정하여 불생불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은 범어 사바하의 실제 의미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하'를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대중에게는 위의 설명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사바하'를 독송할 때마다 무상(無常)이나 공(空)의 교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용 진언들의 출처나 연원을 밝힌다는 책의 취지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 같은 결실은 의례를 설행하는 스님들과 의례에 동참하는 신도들에게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학자들에게는 불교 의례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사 명상으로 눈부신 하루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글 법상 스님 · 그림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 2만원

필사를 통해 명상을 한다.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은 108일 동안 필사를 통해 하루에 법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기도 명상집이다. 법상 스님의 짧은 법문 한 편을 읽고, 이어지는 필사 면에서 필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저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 분별의식의 필터로 걸러서 왜곡해 받아들이기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면서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으로 거름 없이 흡수하는 '필사명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4가지 주제의 이야기 명상과 함께 필사 명상을 통해 사유가 깊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이 분별함 없이 심연의 지혜에 가닿을 수 있게 도와준다.

저자인 법상 스님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16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자상하면서도 파격적이고, 쉬우면서도 강력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 매주 실시간으로 열리는 법상 스님의 정기 법회는 매회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마음공부의 공간으로, 대중은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삶의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

법상 스님은 "이 책을 읽고 필사하는 분들이 다만 한 구절에서라도 삶을 변화시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기일회의 시절 인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책과 함께 하루 10분씩이라도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돌볼 수 있다"고 말한다.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20년 남짓 군승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원회 상주 대원정사와 해운대 목탁소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시간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의 법문들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
종상 스님 지음
불국사 대궁문도회 엮음
조계종출판사/3만5천원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며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라!"

불국사 회주 대궁당 종상 대종사〈사진〉가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가르침이다. 대종사는 2024년 11월 8일 법랍 60년, 세납 7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이제 대종사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대신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결집한 법어집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가 그것이다. 대종사가 원적에 들기 전 사보, 잡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했던 법문들을 모았다. 대중들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쉽고 간명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종상 대종사 법문집 출간
신문 등에 전했던 법문 모아
불교적 대안 법문 가치 여전

책은 제1장 '밑이 없는 배를 저으며', 제2장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 제3장 '끝이 없는 공양을 베풀며', 제4장 '생멸이 없는 말을 설한다'로 구성했으며, 부록에는 대종사의 행장과 삶의 흔적이 담긴 사진, 영결식·유품 사진도 수록했다.

책 속의 법문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행적 해법과 불교적 대안을 담고 있어 오늘의 대중에게도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불국사 대궁문도회 성행 스님은 이것이 출간의 가장 큰 취지라고 했다. 책 속에는 성평등, 자녀 문제, 고령화,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 여전히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수행자의 자세 등이 담겨 있다.

"미움도 싫어함도 깨끗이 씻어버리니 / 헐뜯고 칭찬함이 어디에 붙겠는가 / 초연히 생사를 해탈하니 / 금까마귀 하늘 뚫고 날아가네" 대종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임종게를 남겼다. 대종사의 몸과 마음으로 종단과 불자들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전법, 나눔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로 기억될 것이다.

종상 대종사(1948~2024)는 어린 시절부터 생사의 문제와 무상의 신속함을 깨닫고, 진리를 구하고자 깊은 구도의 여정을 시작했다.

종상 대종사(1948~2024)는 출가 이후 월산 스님으로부터 수행자의 자세와 선수행의 근본 원리를 수학하면서, 계정혜를 준수하는 삶과 수심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1973년 석암 화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1974년 법주사 강원에서 대교과 과정을 마쳤다. 1975년부터 불국사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중의 살림을 책임졌다. 1980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에는 중앙승가대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BBS불교방송 재단 이사, 2013년 BTN 명예이사를 역임했다. 더불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국사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으며, 2022년 원로회의 의원으로 임명됐다. 2024년 법랍 60년, 세납 76세를 일기로 불국사 정혜료에서 원적에 들었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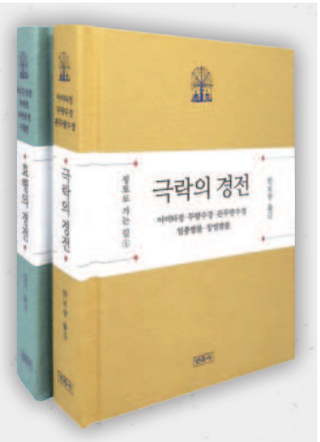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Weekly 선명상 ❺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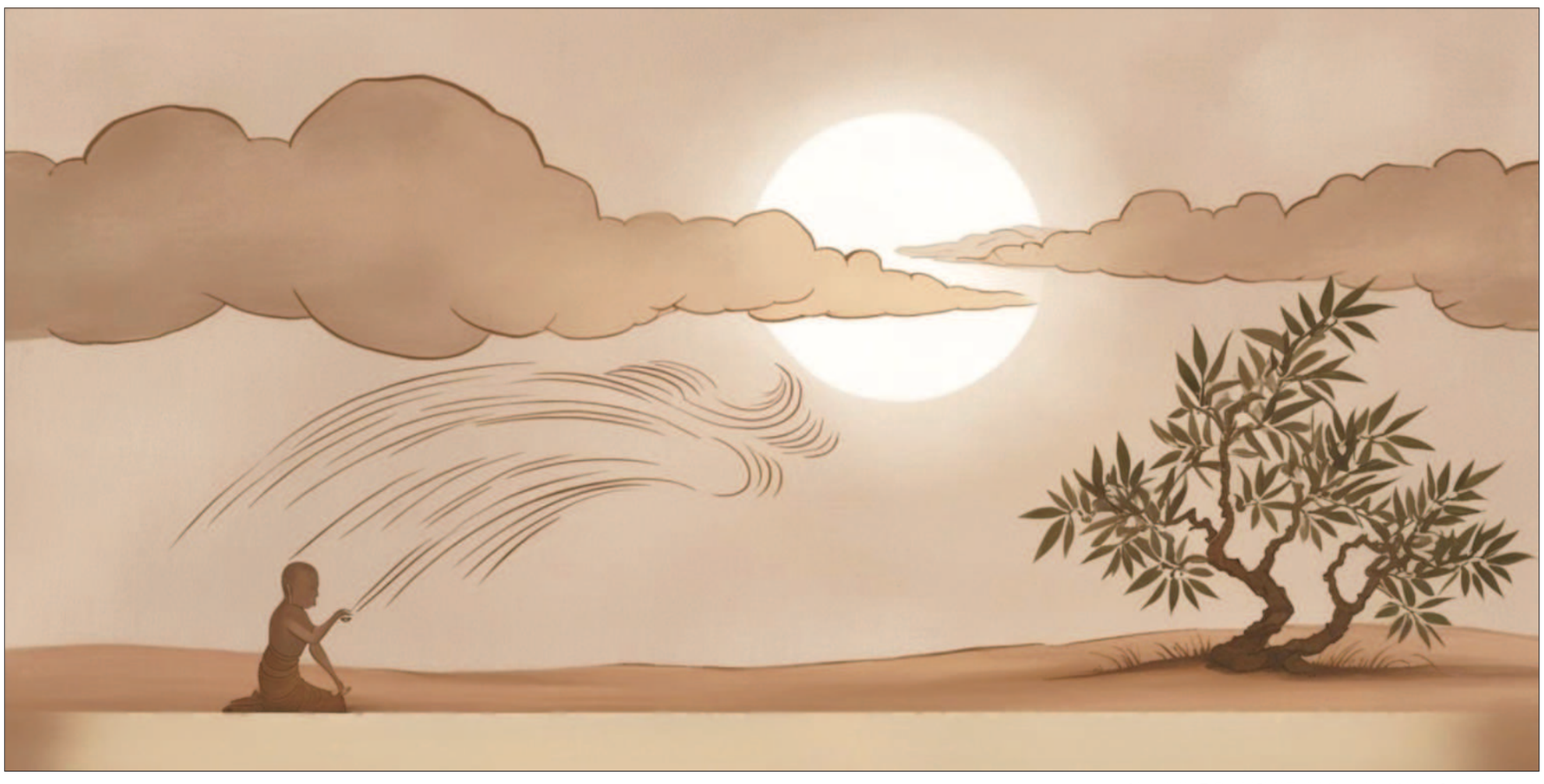
▶한줄 요약
함부로 상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는 결국 내 마음의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탓을 할 상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상대방 탓 말라…상대는 결국 '내 마음의 아바타'

"

내 말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의 책임 전가하려는 행위
내 탓되는 어리석은 행동일뿐
방하착 명상으로 분별 지워야
오늘 하루도 절하고, 염불하며
긍정하고, 베풀어 마음 평화를

"



해당 삽화는 진우 스님의 한글 게송을 생성형 AI에 입력해 제작했습니다.

[오늘의 명상]
바람 불어 열매 떨어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구름 끼어 햇빛 가린다고 구름을 탓하랴.
세상의 인연(因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닐진대
눈앞에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일을 탓할 수 있겠는가.

바람 불어 열매가 떨어지는 것은 인연의 필연적 현상입니다. 구름이 햇볕을 가려 어두워지는 것도 필연입니다. 세상의 인연이란 서로서로 영향을 끼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므로 그 원인을 단순하게 재단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관계 또한 이와 같아서 단순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상대를 탓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그 상대 또한 다른 인연관계의 원인에 의해 행동하는 것일 테니까요.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이 생겼다면 주로 상대에게 원인을 돌려 탓하곤 합니다.

둘째는 내가 원인이 됩니다. 좋던 싫던 내가 있으니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이는 옳고 그름을 떠나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내 탓으로 돌리더라도 왜 내 탓인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그저 귀찮은 마음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라면 결국 앙금은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속으로 상대를 탓하게 될 것이므로 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왜 내 탓일 수밖에 없는가?

우선 탓을 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상대방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란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을 해소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두 가지 바라는 마음과 바라지 않는 마음은 낮과 밤이 서로 의지하듯 번갈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마음도 바라지 않는 마음도 둘 다 내 마음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의 마음은 상대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어 반드시 나타나고 맙니다. 결국 상대방의 모습은 내 마음의 아바타일 수밖에 없고, 상대를 탓하는 것은 나를 탓하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니, '만법유식(萬法唯識, 일체 모든 현상은 내 마음의 투영)'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탓하는 것은 곧 나를 탓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됨은 물론이고, 그 버릇이 습(習)으로 남아 바라지 않는 상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다시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업(業)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상대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상대는 결국 내 마음의 아바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탓을 할 상대가 나타나지 않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바라지 않는 마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놓음, 즉 방하착(放下着)의 명상을 실천하십시오. '방하착 명상'은 집착을 내려놓고, 내 마음 안의 분별심과 바라지 않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를 탓하거나 갈등을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절하고, 염불하며, 긍정하고, 베풀어 마음의 평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명상]
좋은 것을 굳이 구하려 하지 말라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다.
나쁜 것을 굳이 피하려 하지 말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좋은 것을 굳이 구하지 말라는 말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치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마음의 흐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과 마음의 모습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없어지나니"라는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뒤따르고, 즐거움이 없다면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는 마치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예약되어 있고, 해가 뜨면 해가 지는 것이 정해진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인 현상은 반드시 나타나며, 이는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좋은 것을 추구할수록 나쁜 것도 예약되어 있고, 나쁜 것을 피하려 할수록 좋은 것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으로, 현생에서 나타나지 않더라도 내생에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삶은 희로애락의 교차이며, 오늘 웃었다면 내일은 울 일이, 오늘 성공했다면 언젠가 실패의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윤회의 실상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교차되는 감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중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중도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대적 현상을 초월할 때 우리는 열반에 이르는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오늘의 기쁨은 어제의 슬픔이고, 오늘의 슬픔은 내일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의 교차를 깊이 깨닫고, 크기를 줄여야 합니다. 감정이 작아질수록 우리는 평안에 가까워집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선명상을 통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선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하고, 상대적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점심(點心), 즉 고요와 깨달음의 점을 찍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도의 실천을 통해 희로애락의 윤회를 넘어 평안과 자유를 찾는 여정을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산양 가죽신발로 겨울철 맨발 걷기를" 어싱 샤모아 슈즈 2025 신상출시

NEW 신상품

비바미에서 맨발 걷기 신발에 이어
접지신발을 개발하였습니다.

어싱 샤모아를 새로 출시합니다.



샤모아 (chamois) 는
다공성 가죽의 일종으로, 유럽의 샤모아 산양의 가죽에서 유래된 것.
오늘날에는 지역 구별없이 산양의 가죽을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유연하고, 의복용, 장갑용 사용되기도 하며, 세탁해도 유연성이 변화되지 않고 더운 여름에도 땀이 덜 차는 장점이 있다.

판매가 80,000원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❶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지역 불교에서 전법 포교를 책임지는 교구본사와 말사들. 한국불교 유지 계승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포교, 복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 활동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과 미래를 생생히 조명한다. 〈편집자 주〉

“용주사 숲길 조성해 지역과 소통…孝문화 알리겠다”

대담=한명우 대표이사 · 정리=임은호기자

수도권 주요 포교거점 사찰로 손꼽히는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효행근본 도량’이라는 특화된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 전법도량으로서 발걸음이 더욱 기대되는 교구본사다. 2023년 4월 용주사 주지로 취임, 교구본사 주지 반만기를 달려온 성효 스님은 “효행본찰의 사풍 역사를 잇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전법포교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용주사의 가치가 세상 속에서 구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20일, 용주사 접견실에서 진행된 성효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의 대담을 정리한다.



성효 스님은…조계종 제30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99년 재정국장을 맡으며 종단 종무행정에 눈을 떴고 2011년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를 역임하며 제주 불교 발전에 기여했다. 2016년 불교문화사업단장을 맡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알리는 데 기여했다. 2023년 4월 10일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 주지로 임명됐다.

Q 용주사가 위치한 화성시가 올해 특례시가 됐습니다. 스님께서는 특례시 시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요. 화성특례시에 위치한 사찰로서 추진하는 지역 친화적 종책과 불사, 협력 사업이 있으신지요.

화성시 인구가 104만명에 달하며, 올해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특례시가 된다고 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주요 사찰이자 교구본사로서 해나가야 할 지역 친화적 종책들이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용주사는 화성시와 함께 용주사 숲길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용주사는 주산(主山)인 성황산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화성시는 성황산 숲길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하며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찰 측에서는 시민 공유 의미뿐 아니라 정조의 효심과 부처님의 청정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뜻깊은 정책이 잘 이행될 수 있게 지자체와 지원과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화성특례시는 지금도 한창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는 곳으로 인구가 15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20~30년 뒤를 보고 스마트형 도시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도 전통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활동하는 것은 불자뿐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이롭게 적용돼야 합니다. 용주사는 지난해 봄 난치병 환자의 쾌유를 발원하며 3000배 정진으로 1배에 100원씩 모금을 진행했고, 이후 2주에 한 번 주지스님과 함께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1080배 기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정진은 교구에 자비나눔 신행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으며, 추워도 밖에서 절을 이어갑니다. 이는 불교가 지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우리 불교에게도 큰 수확입니다. 모연금은 지역사회와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회향됩니다. 최근에는 제주항공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종단에서 시스템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구본사가 지역 속으로 들어갈 때, 진짜 자치시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용주사는 지난해 경기 남부권 5개 대학에 불교학생회 출범을 추진하며 미래세대 포교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5일 화성시와 함께 숲길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주산(主山)인 성황산을 시민에 개방키로 했다.



대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성효 스님과 한명우 본지 대표.

Q 용주사 슬로건은 ‘효행근본 도량’입니다. 효를 적용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용주사는 조선시대 정조가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고 효행을 실천하기 위해 지은 사찰입니다. 효행근본 도량으로서, 세계적인 효행 도량이 되도록 하기 위해 주지로 오자마자 외친 것이 효를 알리는 국제적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효가 무엇인지를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화성시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벤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잘 갖춰져 있는 효행박물관과 효행공원, 효를 배우고 실천하는 템플스테이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고요. 이미 하드웨어가 구축돼 있으니 어떤 콘텐츠로 구성하냐가 관건입니다. 용주사가 후원하는 화성시정조효노인복지관(관장 탄하 스님)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시니어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도 그중 하나이겠지요.

사회가 개인적으로 흐름에 따라 가족 구성원의 결속력이 희박해지고 있지만 교육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만 국가 미래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도 효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질 않습니다. 효에 대해 알리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세계에 알리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Q 100여 곳의 말사를 거느린 교구본사 수장으로서 말사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할 텐데요. 말사와의 관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일까요?

기본 철학을 기초로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구본사가 본(本)을 보여야 합니다. 수행자로서 직분을 다하고, 말사에서 올라오는 각종 요구사항과 민원 중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바로 인지해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각각 위치한 곳에서 제기능을 하다는 것이 본분사(本分事)이며, 그것이 지켜질 때 탈이 없습니다. 말사에 무턱대고 교구행정을 펼치기보단 배우는 자세로 구성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초빙해 배우는 자세로 함께 임하며 상호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교구본사만이 업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경기남부는 수도권 중에서도 주요 포교거점입니다. 최근 동탄 신도시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많은 만큼, 청소년과 청년 포교에도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사의 대학생 전법 사업에 대해서 불자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지난해 용주사는 경희대 국제캠퍼스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등 경기 남부권 5개 대학에 불교학생회 출범을 추진하며 미래세대 포교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각 대학의 불교동아리가 점점 활성화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전달했고 봉녕사 등 말사 스님들로 구성된 지도법사와 지도교수를 임명, 불교학생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활동하는 1~3년이라는 기간은 부처님과 맺은 인연고리가 어떻게 한평생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대학생 전법에는 지도교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교수를 잘 선정, 경기남부지역이 전법의 중심되길 소망합니다.

Q 종단에서는 지역 교구 활성화를 위해 미래본부 내 교구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도 했고, 추후에는 조계종 연구소에서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교구 자치와 교구 활성화를 위한 용주사의 종책 방향이 궁금합니다.

교구본사가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사회와 한몸이 돼야 합니다. 용주사의 경우 ‘효’라는 특별함이 있기에 이를 지역과 톱니바퀴처럼 잘 엮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산속 사찰이든 도심사찰이든 역할이 같아졌습니다. 교구본사는 본사로서 말사를 아울러야 할 것이고, 단위 사찰들이 지역 거점 역할을 잘하면 됩니다.

Q 2025년 새해를 맞아 불자들에게 당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큰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내길 기대합니다. 모든 관계와 내 마음 속에 어떤 것을 가졌는지 가만히 들여다본다면 이는 큰 수행이 되고, 우리에게 생긴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싱 방한 부츠는
어싱슈즈의 특징인 걷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온 소재를 사용하여
따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소재의 천, 가죽 그리고
고무 밑창입니다.

한 겨울에도 따뜻하게 걸으면서
어싱할 수 있습니다.

NEW 신상품

“방한 부츠로 겨울 어싱을 편하게 즐기자~”

비바미 어싱(접지)
방한 부츠





소재 : 가죽+천+도전특수 고무밑창

120,000원 ▶ 판매가 80,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좋은 신발은 자연을 맨발로 걷는
인간 본연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1. 비바미 신발은 밑창이 발바닥 전체에 균등하게 체중이 배분되어 발의 압박을 분산,
2. 발바닥 혈관을 자극해 피가 하체에 쏠리는 것을 줄여주면서 혈액 순환을 개선,
3. 이를 통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4. 발바닥 근육을 모두 사용하고, 발가락 뼈의 정형화를 촉진합니다.

이처럼 최대한 신발의 기능을 제거하여 신발로 인한 고통을 없애는 것이 비바미 신발의 특징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일야의 詩, 불교를 만나다 ❷ 정현종의 〈방문객〉



▶한줄 요약
시 '방문객'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한다. 한 사람의 일생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을 '맹구우목', 즉 눈 먼 거북이 바다에서 널빤지를 만나는 것에 비유한다. 일생이 다가오는 것도, 불법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게 이뤄진 귀한 인연이다.

사람과 사람, '맹구우목'의 因緣

〈盲龜遇木〉



사람과 사람, 사람과 佛法도 모두 희유한 만남으로 환대한다면 귀한 인연으로 이어갈 수 있다.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몇 해 전 tvN에서 〈이번 생은 처음이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된 적이 있다. 재미도 있고 요즘 젊은 세대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 본방사수를 하였다. 특히 욜로(YOLO)로 상징되는 그들의 생각에 공감이 많이 되었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미래에 투자하기보다 지금 당장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외친다. '인생은 단 한 번뿐(You only live once)'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내 집 마련이나 노후 대비를 하느라 현재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기성세대와는 분명 많이 달랐다. 무엇이 옳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노인이나 젊은이나 이번 생은 모두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여주인공의 지적처럼 어제를 살아봤다고 해서 오늘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문득 시집 한 권이 등장하였다.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시집이었다. 여주인공은 바닷가에 앉아 시를 읽고 있었다. 순간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한 편의 시가 흘러나왔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로 시작되는 '방문객'이라는 시였다. 시와 여주인공, 바닷가와 배경 음악이 묘하게 어우러진 인상적인 순간이었다. 모르는 시는 아니었지만, 드라마에서 마주하니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불교라는 렌즈를 끼고 찬찬히 사색하면서 음미해보았다. 시와 불교가 만나는 낯선 시간이었다. 잠자고 있던 삶(生)이 조금씩 깨어나고(覺) 있었다.

정현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시인이다.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이라는 시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작가다. 시인의 말처럼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라 생각하면 지금 이 시간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대중에게는 '섬'이라는 시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섬을 주제로 하는 기행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한다. 짧으면서도 임팩트 있는 시를 잠시 감상해보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외로이 홀로 서 있는 존재다. 그런데 시인은 그 섬에 가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건너편에 있는 사람과 그 섬에서 만나고 싶은 바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모든 생명은 그렇게 서로 만나고 관계하면서 존재한다. 시인은 '비스듬히'에서 생명은 서로 기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한다. 모든 존재는 공기와 나무 등 다른 것들에 기대여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대는 것이 맑으면 나도 맑고, 그것이 흐리면 나도 흐리다. 우리 모두는 "비스듬히 다른 '비스듬히'를 받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시인의 통찰이다. 섬은 이쪽 비스듬히와 저쪽 비스듬히가 만나 소통하는 공간인 셈이다.

이러한 시인의 성찰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緣起)와 서로 통한다 할 수 있다. 연기란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此起故彼起)'는 연기의 공식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너'에 대(對)한 나이며, '이것'은 '저것'에 대한 이것이다. 서로가 존재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뜻이다. 마치 볏단 하나를 세워놓으면 쓰러지지만, 서로 비스듬히 기대면 제대로 설 수 있는 이치와 같다. 모든 존재는 그렇게 홀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정현종은 1965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다. 그는 한때 신문 기자로 일하기도 했으며, 1977년부터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사물의 꿈〉을 비롯하여 〈한 꽃송이〉 〈세상의 나무들〉 〈광휘의 속삭임〉 등 여러 시집을 펴냈다. 한국문학작가상과 연암문학상, 현대문학상, 미당문학상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방문객'은 2008년 펴낸 〈광휘의 속삭임〉에 실린 시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인데, 특히 3월 초 첫 수업을 시작할 때면 자주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 온 학인들은 필자가 몸담고 있는 불교대학에 방문한 손님이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생명, '관계'로 존재… 緣起 상통
만남에서 과거·현재·미래 소통
佛法 조우도 희유(稀有)한 기회
'환대' 통해 만남의 인연化 가능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 부서지기 쉬운 /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 마음이 오는 것이다—그 갈피를 /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 마음, /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 낸다면 /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눈먼 거북이 널빤지 만나는 인연

시인은 첫 구절에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일생이 온다는 뜻이다. 영겁의 인연과 함께 오는 손님을 어떻게 소홀히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온 정성을 다해 환대를 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첫 수업 때마다 '방문객' 시를 들려주는 것도 이러한 마음으로 학인을 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해서 인연을 맺는 일이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것 같다.

불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는 인연을 맹구우목(盲龜遇木), 즉 눈 먼 거북이 널빤지 만나는 인연에 비유한다. 대개 불교에 입문하면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다. 태평양 한 가운데 눈먼 거북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 거북은 숨을 쉬기 위해 100년에 한번 얼굴을 물 밖으로 내미는데, 바다를 떠다니던 구멍 뚫린 널빤지 안으로 거북의 목이 쏙 들어간다는 것이다. 과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모르긴 해도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처럼 만나기 어려운 일을 가리켜 희유(稀有)하다고 말한다. 불교와의 만남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다. 시인의 말처럼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불교와의 희유한 인연을 섬개투침(纖芥投針), 그러니까 작은 겨자씨가 바늘에 꽂히는 일에 비유하기도 한다. 바늘을 땅위에 세워놓고 하늘에서 겨자씨 한 톨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라. 과연 그 위에 꽂힐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불가능에 가까운 인연인 만큼 지금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자는 의미다. 보조국사 지눌의 〈정혜결사문〉에 나오는 대목이다.

"무릇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외우고 익히는 사람은 마땅히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는 마음(難遇之心)을 일으켜야 한다."

난우지심(難遇之心), 즉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는 마음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야 불교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BTN에서 제작한 108대참회문에 맞춰 절을 할 때면 가끔씩 마음이 울컥해지곤 한다. 특히 61번에서 63번, 부처님과 가르침, 승가에 귀의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한다는 내용이 나올 때 더욱 그렇다. 불교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를 생각하면 불교라는 세계에 방문해서 공부하고 수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감사할 뿐이다.

그런데 그 방문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시인의 말처럼 때로는 '부서지기 쉬운,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과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더듬어볼 수 있다면 환대가 되겠지만,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문득 〈어린 왕자〉의 한 장면이 생각났다. 어린 왕자는 자기별을 방문한 꽃에게 짜증을 많이 낸다. 꽃이 변덕스럽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이라 생각한 것이다. 꽃 역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와 함께 왔을 텐데 말이다. 물론 부서지기 쉬운 마음도 왔을 것이다. 그 마음을 어린 왕자는 알지 못해 꽃은 환대 받지 못한 것이다.

자기가 살던 별을 떠나 지구에 방문한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는다. 그 유명한 대사, '길들인 것에는 책임이 있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게 된다. 무엇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꽃의 마음을 더듬어 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이러한 깨달음에 이르자 어린 왕자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꽃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임을, 꽃의 거짓말 뒤에는 연약함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잠자고 있던 어린 왕자의 삶(生) 또한 깨어나기(覺) 시작했다. 아마 자신의 별로 돌아가면 꽃에게 짜증을 내지 않고 반가운 마음으로 안아줄 것 같다.

방문객의 마음의 갈피를 더듬어 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람을 흉내 내라고 한다. 사람과 달리 마음의 벽이 없기 때문이다. 바람은 섬이든, 육지든 가리지 않고 방문하는 이들의 부서진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이런 점에서 불교는 바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지구라는 별에 방문해서 환대를 받고 불교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제는 집주인의 마음이 되어 바람이라도 흉내 내어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방문객을 환대하기 위해서 말이다. 한글을 조금 파괴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환대를 위한 노력이 될 것 같다.

"차~암 좋은 인연입니다."

〈전북불교대학 학장〉

연말연시에 어울리는 토종꿀 선물 세트!

지친 일상 속에서 자연의 달콤함을 선물하세요



– 전통 산사의 자연 조건에서 생산된 토종꿀로 연말연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이 흐르는 괴산의 낙영산, 보개산에서 얻은 신선한 꿀입니다.
– 지금 구매하시면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대량주문협의가능)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출강 및 통신 2025학년도 제34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전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4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 02)733-1959 720-1836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17호 | 15 | 전면광고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다면
진실로 여래를 볼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금강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60평
- 건평 : 15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20억
- 위치 : 부산포교원 • 면적 : 60평실평
- 5층건물에 4층 • 전철역 출구앞
- 보2000/70만원, 권리1000만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 요양원 (급) 안내

- 위 치 : 경남 밀양시 부북면 퇴로로 171-8
- 사찰 요양원 일체 매매(명당터) / 주차장 포함 대지 900평
  사찰 2층 총 54평, 황토방 포함 요사채 42평
  요양원 2층 180평(25명 정원 및 신도 많고, 요양원 베드 만석)
  인수시 원장, 부원장 바로 월급 받음
- 건강상 이유로 내놓습니다
- 가 액 : 13억원(절충 가능)

010-9234-08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3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 청정 기도도량 입니다

010-2807-0509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고령군 덕곡면 인곡1길33-12
- 대지 310평/법당, 산신각 20평/요사채 50평
- 창건 50년
- 가액 : 2억9000만원

010-2369-3382

사 찰 안 내

- 위치 :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 267-28(황종사)
- 부지 : 3,300평부지
- 전각 · 요사채 여법합니다.
  NAVER - 황종사
-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 드립니다
- 문자 · 문의주세요.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납골당 · 봉안당 허가 가능
- 가액 : 8억 절충

010-4599-01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
- 총평수: 380평
- 대웅전, 산신, 용왕, 노천 해수관음상
- 요사채 30평(현대식 부엌)
- 매매 전세 가능

010-8409-824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구포시장 옆
- 1층 법당 外 약 60평
- 보증금 6000만원
  월 세 120만원
  (별도 2,3층 복형 가능)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3억 5000만원

010-7902-005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남 화순 군청 종합민원실 맞은편 능인선원 3층 건물 전체
- 3층 대웅전, 2층 아미타전
- 법당 및 고가 불교용품 포함
- 금액 : 7억 5천

010-3648-4997
"문자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대동안길 32번지 해동선원
- 신축법당 25평, 요사채 50평
- 산신각 사리전 나한전 용왕당
- 총 290평 및 국유지 720평
- 가액 3억 6000만원

010-3596-0088

국제붓다자비 평화봉사단

국내외 자비봉사단. 육법공양단. 불교 합창단

생활불교 실천에 잠시의 여유를 갖고 그늘진 곳 중생들에게 힘이되어줄 인간방생 중생구제에 앞장 설 보현보살, 관세음보살을 모십니다.

02-733-5665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연(離緣) 공고

■ 법명 : 도희(김소연)

상기인과 본인은 사제(師弟)의 인연이 다하여 이에 이연(離緣)을 공고합니다.

불기2569(2025)년 1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수안사
대한불교조계종 포천 보현사
재단법인 선학원 수안사

주지 묘담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공 고

대한불교총화종은 "2024년 7월 1일~12월 30일까지" 본 종단 소속 등록 사찰과 승려에 대하여 기존의 증명서(사찰 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소속 등록 신고)를 새로운 증명서 양식으로 갱신 발급 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 지정기일까지 증명서 갱신과 소속 등록 신고를 하지않은 사찰과 승려를 대상으로 "2025년 3월 30일까지" 기일을 한정하여 공고하오니, 본 종단 소속 등록 사찰과 승려는 기일 내에 갱신과 소속 등록 신고를 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와 같이 본 종단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2025년4월1일자로 본 종단에 등록한 사찰과 승려에 대하여 재적하여 퇴출 할 것임을 고지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총본산(총무원):충북 영동군 양강면 양정죽촌로454-86
전화:(043)745-4508/총무부장 법장스님:010-5436-2740

2025년 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9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17호 | 16 | 전면광고

너희 비구여, 만일 마음을 잡아 가지면
마음은 곧 정에 있을 것이니,
마음이 정에 있기 때문에 능히
세상의 생멸법의 모양을 알 수 있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 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 무속인, 법사, 무당, 일반인, 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재,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 : 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공양주 채용

선한 마음은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가장 큰 힘이다
- 광명스님 -

010-7354-347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증업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립니다.

육임 정확도 효과성 착목도 속도성 보장

익명성 지피(知被:감추는 상대의 비밀 · 고민사 판단됨-생년월일시 불필요함)

1. 상대(방문 전화)가 누구든, 언제 어디서든, 무슨 문제이든 실시간으로 미리, 또는 즉시 판단됩니다.
2. 오늘 몇 시, 내일 몇 시, 방문, 내방, 전화이든, 지난 또는 다가올 당시의 연월일시든, 상대 속마음, 용건, 사안의 대소, 가부 호악 진퇴 희비 및 감추는 비밀사까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3. 상대가(전화포함)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익 될 人 인지, 피해줄 人 인지, 손해나게 할 人 인지, 무력 人 (지위고하세력 막론, 해당사안 위주) 인지가 미리 또는 즉시 화면에 나타납니다.
4. 동일한 시간에 여러 사람이 오거나 찾아가거나 전화통화를 하더라도 '다음사람'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인의 여러 내용이 즉시 나타납니다.

- 왜 왔는가?
- 상대의 신뢰심(진위고집불성등) 여부
- 주요상담성취 안좌방위 및 회의 안건 반대자 여부
- 교섭 전후난이 상대진위 여부
- 소송 승패(구속 불구속) 여부
- 주식 이익종목 선택 및매도 매입 시기
- 상대 충성배신 여부
- 남여 성력(性力) 및 선호 태위 여부
- 주요 공사책임자 선정 및 무사고 개시 일시여부
- 깃발 착복색 선택 당선 승진 취직시 험사 여부
- 생업가정흥쇠여부
- 남녀 독신 고독 생사별자 여부
- 부부 동시 색정 1남2녀 1녀2남 삼각관계 여부
- 사안의 대소규모 여부
- (상대 현재실정)
- (상대구체 사안)
- (상대적확성)
- 상대 계획 도모사 측정 여부
- 전화 친견 상담용
- 면접사 여부
- 모망사 여부
- 구재사 여부



50일간 특별할인가격 90만원(업데이트 완성)
카드 3개월 결제 - 결제 즉시 소지 휴대폰에 실행파일 전송



50일간 특별할인가격 200만원(완결판) 교환 30만원
육임 USB 프로그램 - 인터넷 없이 영구 사용
02-567-3850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육임쇼핑)

- 귀신침해 부정 침범 산소탈(묘지속水蛇)여부 및 해소 방편
- 수법(천도 시식기도) 효과 유무
- 효과기도 분류
- 이혼 승패(유리 불리 여부) 운세 명암 지점 여부
- 임대 임차 이해친소 가옥 사옥 이전 길방여부
- 상대 신분(대통령, 장관급, 차관, 고위급, 지방관서장, 사계실력인, 우고인) 여부
- 목적 성취기도 일시 지정
- 금융재 금액 대소여부
- 선출직 성격 실적 사전 판단
- 뇌물 증여 가납 효과 여부
- 질병치유 여부
- 가출 귀가사 여부
- 혼인사(용모 가문 시기)
- 연년세세 1년 월별 신수
- 친화 구해 자녀 여부
- 혼인 부부 성격-궁합 여부 등등
- 우고사 해소되는 방문(전화) 시간 명시
- 무성(無聲:헛소리)에 불과한 방문(전화)시간 명시
- 임신사 여부
- 출산 길일 길시 선택 지정

육임AI 순회 효능 설명회
서울지역 월요일 14시 대전지역 화요일 14시 전주지역 수요일 14시 광주지역 목요일 14시 부산지역 금요일 14시 대구지역 토요일 14시 강원지역 일요일 14시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③ '굿파트너'(2024)

곁에 있는 파트너가 선우요, 선지식

불교 의식은 '삼귀의'로 시작한다. 불자라면 세 가지 보배에 의지해야 하며, 그 세 가지 보배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불법승(佛法僧)이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자라면 누구나 귀의해야 하는 것이다. 삼보 중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法)은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고 영원한 자유와 행복을 얻게 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에서 진리나 법칙 등의 의미를 갖는다. 나아가 그런 법칙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한 마디로 불교는 '법'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 서양에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양손에 각각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법과 정의의 공정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다. 법(法)이라는 한자의 원래 글자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수(氵)'와 '거(去)' 이외에 옳고 그름을 가려낸다는 해치(獬豸)를 뜻하는 글자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해치는 동양에서 정의의 여신이고 물은 저울, 제거[去]는 칼인 셈이니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의 가치는 역시나 잘못된 것을 공평무사[水]하게 바로잡는[去] 데에 있는 것이다. 때문에 '법'은 드라마 소재로도 매력적이어서 그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법정드라마가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지난해 말, 주인공 장나라 배우에게 데뷔 23년 만의 '연기대상'을 안겨준 드라마 '굿파트너'(2024)는 독특하게도 이혼 문제에 집중한 법정드라마다. 법무법인 대정의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배우 장나라)과 신입 변호사 한유리(배우 남지현)가 여러 부부의 이혼소송을 맡아서 해결해나가는 이야기인데 실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집필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다.

'굿파트너'라는 제목의 '파트너'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 우선 법무법인 대정 내에서 '파트너(partner, 구성원변호사, 시니어)'라는 말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이익을 배당받는 변호사의 직급을 가리킨다. 이혼1팀의 차은경이나 이혼2팀의 정우진(배우 김준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대략 10년 차 미만에 배당금이 아닌 급여를 받는 변호사를 '어소시에이트(associate, 소속변호사, 주니어)'라고 하는데 한유리나 전은호(배우 표지훈)의 경우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굿파트너'는 회사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변호사'라는 의미이다.



SBS 금토드라마 '굿파트너' 포스터. 사진출처=SBS

파트너가 내 부족함 채워주길 바라지만 기대 못 미치면 곧장 실망·갈등하게 해 함께 진리 구하는 '도반', 또 다른 '부처'

두 번째는 이혼1팀의 차은경과 한유리를 가리킨다. 오고 싶지 않던 이혼팀에 억지로 오게 된 신입 변호사 한유리가 베테랑 이혼 전문 변호사 차은경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점차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가고, 차은경 역시 감성적인 면이 강한 한유리를 통해 점차 인간적인 변호사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조금 더 널리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은경을 지지해주는 이혼2팀의 파트너 변호사 정우진도 차은경의 훌륭한 파트너이고, 서로 사랑의 싹을 키워가는 한유리와 전은호도 서로의 굿 파트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드라마가 강조하려는 의미일 텐데, 이혼 사건에 등장하는 부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던 온갖 파트너들이 이혼을 둘러싸고 원수처럼 법정에서 다투는 모습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던 '굿 파트너'가 어떻게 원수 같은 '배드 파트너'가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혹 다시 '굿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지 생각해보게 한다.

드라마의 큰 줄기를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 차은경과 내과의사인 남편 김지상(배우 지승현)의 이혼 사건을 보자. 먼저 둘은 서로의 어떤 점에 이끌려 결혼한 것일까? 지상은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성격이어서 늘 다른 사람에게 맞춰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표의식이 분명하고 진취적인 은경에게 반했다. 제일 빨리 나온다는 이유로 일반 김밥만 먹을 정도로 시간을 따지는 은경은 결혼까지도 효율을 따지듯이 짧은 연애 끝에 빠르게 해치웠다. 그럼에도 지상의 사진을 보면 행복하고 지상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마음은 진심이었다.

둘 사이에 딸 재희(배우 유나)가 태어나고, 마냥 행복한 미래가 펼쳐질 줄 알았던 두 사람이지만, 은경이 승승장구할수록 서로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지면서 지상은 은경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에 한없는 격차가 있을 것임을 깨닫고 자신의 욕망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결국 은경의 비서 최사라(배우 한재이)와 불륜을 저지르고 만다. 어릴 때부터 서울 생활에 대한 동경과 안정된 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던 사라는 은경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점차 질투와 열등감으로 바뀌며 은경의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한다. 은경은 진작부터 남편 지상의 불륜을 알고 있었지만, 이혼이 자신에게 큰 이득이 없다는 생각에 애써 외면하던 중, 최사라가 지상과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결국 이혼을 청구한다.

이혼소송이 시작되자 딸 재희의 양육권을 누가 갖는가가 최대 관건이 되는데 딸의 선택을 받기 위해 은경과 지상은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은경과 지상은 물론 시청자들도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은경과 지상이 서로의 다른 점을 보고 끌렸던 것처럼, 상대에게 부족한 것을 나라면 메워줄 수 있겠다는 결심이나 또는 나에게 부족한 면을 저 사람이 채워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파트너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끊임없이 상대와 나의 부족한 점을 자각하며 사는 일은 행복할 수 없고, 행여나 그렇게 나를 완성시킬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았다고 생각하더라도 내 기대만큼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지 못하면 곧장 실망과 갈등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군가 훔쳐간 갈비뼈 되찾듯이 잃어버린 내 영혼의 단짝을 찾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온전하지 못한 내가 영혼의 단짝을 찾아 완성되었다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인생은 무엇인가? 또한 내가 찾은 영혼의 단짝에게도 내가 과연 영혼의 단짝인가?

어떤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의 굿 파트너가 될까? 불교에서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도반(道伴)이라고 하거나 선우(善友)라고 한다. 함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더 나아가 선지식(善知識)이라고도 한다. 이보다 더 훌륭하게 부부를 표현하는 말이 있을까?

내가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나보다 훌륭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내가 성숙한 만큼 그 사람도 충분히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미 성별이 다르고 살아온 세월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다른 것을 또 이야기할 것이 뭐 있을까? 그 다름 그대로가 완전한 사람임을 알고 그대로 존중하면 될 일이다. 그저 본래부터 부처인 내가 또 다른 부처를 만나 부처로 예경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 곁에 있는 파트너가 굿 파트너, 즉 선우가 되는 것을 온 몸으로 알게 될 것이다.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빈자에게 베풀어 보시 권선
불도수행, 추선공양을 함께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⑤ 삼계교와 무진장(1)

무진재·무진장(無盡財·無盡藏) 사상은, 인도에서 비롯돼 중국으로 전해졌으나 인도와 똑같이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지리·환경적 조건에 의한 사원의 운영과 경제적 상황이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삼계교의 '무진장법행' 사상은 '율전'에서의 내용과 뜻을 습득한 후 〈화엄경〉에 담긴 대승불교의 기치를 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계교의 '무진장법석(法釋)'에 의하면, 오직 불도를 수행하는 보살도로서 〈화엄〉 〈유마〉 등의 경전을 인용하며, 경전(敬田) 비전(悲田)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무진장물(物)로서 가난 아래 있는(貧下) 중생에게 베푸는데, 그것은 수(數)에 의해 베푸는 고로 선심을 발한 즉 이루기 쉬우며(悲田), 둘째는 빈궁(貧窮)인을 가르침으로 소(少)재물로서, 타보살의 무진장시에 같이 동참하게 하여 그 보리의 마음을 점차 발(敬田)하게 함이라."

이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 그 선심(善心)을 얻기 쉬움을 이야기하며, 그것을 인연으로 타인에게 권선해 보시하는 마음을 내도록 유도하는 것을 삼계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 보시로 말미암아 전생의 빚과 업마저 모두 벗어난다는 내용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도 불법 수행과 더불어 추선공양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무진장의 베품으로 인하여 비롯됨이 없는 숙채(宿債)가 일시에 정지되며, 채주(債主)를 두려워 말고 장도(障道)인 업장보장(業障報障) 또한 일시에 멸하여, 부모형제 육친 권속 등이 삼악도를 벗어나니 이 어찌 큰 이익이 아니리오."

이 같이 인도의 자리(自利)적인 무진장행은 중국에 와서는 이타(利他)적으로 전환됐고, 이후 삼계교 전원이 이를 덕목으로 수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름을 알 수 없는 '삼계교 모(某) 선사'의 행장에 "선사는 비전사(悲田寺)의 선원 조성 시, 포주성 서쪽 강의 뚝 나무를 팔았다"는 기록을 보면, 황폐한 절의 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공덕을 쌓는 수행으로 정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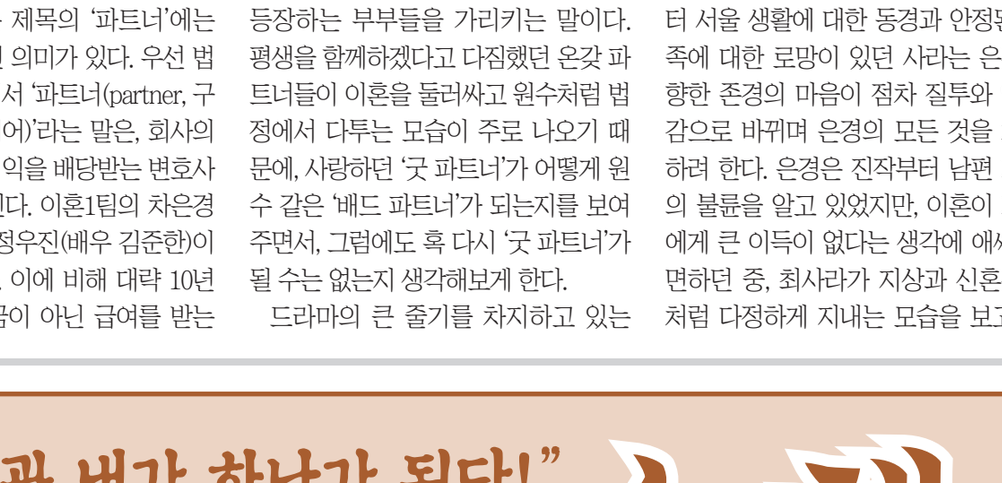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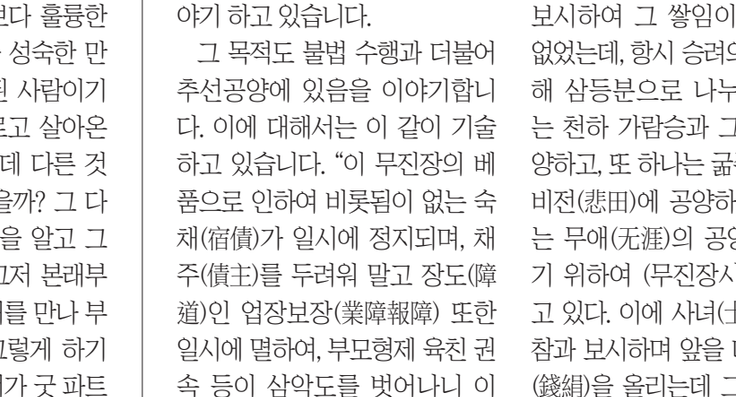
또 〈속고승전〉에 의하면, "묵(默) 선사는 개황말년(600)부터 대업10년(614)까지 연도별로 크게 베풀었는데, 멸도 할 즈음 제자 덕미에게 무진장행을 위임했다. 그는 스승의 행적에 따라 비경양전(悲敬兩田)을 해마다 베풀어, 의복 혹은 후량(糗糧, 말린 양식)을 건네며 모든 복처(福處)를 짓는데 남음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삼계교도들은 물품과 경전을 베푸는 복업을 닦고 〈법화경〉의 상불경 보살행과 죽어서도 베푼다는 이른바, 풍장(風葬, 시신을 태우지 않고 한 편에 둬 벌레나 짐승에게 보시하는 장례 방식)을 한 연후에, 남은 뼈로 탑을 조성하였다는 철두철미한 보시의 행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계교가 운영한 무진장의 목적은, 불도수행과 추선공양을 위한 사회적 구제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평광기〉의 화도사 무진장원의 기록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화도사의 무진장은, 정관(貞觀)연후에 전금(錢金)과 금옥을 보시하여 그 쌓임이 계측할 수 없었는데, 항시 승려의 감시를 통해 삼등분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천하 가람승과 그 수리에 공양하고, 또 하나는 굶주린 이들의 비전(悲田)에 공양하고, 또 하나는 무애(无涯)의 공양에 충당하기 위하여 (무진장시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사녀(士女)들이 예참과 보시하며 앞을 다투어 전견(錢絹)을 올리는데 그 이름을 알지 못했다."

〈송림사 주지〉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行禪 전문 신발
수행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New
캔바스 수행화
· 색 상 : 멜란지그레이 · 사이즈 : 233~280mm
· 특 징 : 발 볼과 발등이 넓은 편안한 맨발같은 신발 밑창은 짙은 회색으로하여 위, 아래 조화를 추구하여 제작한 수행화
· 소 재 : 캔바스 (내부에 고무로 내피를 덧되 방풍, 방수가 되는 4계절용)
절찬 판매중!!


그레이화이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 사이즈 : 233~287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 소 재 : 캔바스 (내피없는 시원한 재질)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이승혜의 그녀, 붓다를 만나다 ❸ 돌에 새긴 백제 공주의 불심

▶한줄 요약
1995년 능산리사지 4차 발굴 조사서 출토된 '석조사리감'. 감실을 둘러싼 좌우면에 새겨진 20자의 명문에는 백제 창왕 13년인 정해년에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마도 공주는 부왕의 명복을 빌고, 형제인 위덕왕의 치세가 평화롭고 백제가 번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던 불사리를 아낌없이 공양했을 것이다.



소중한 불사리 공양…20자에 담긴 공주의 마음

백제에 불교가 전해진 것은 침류왕이 즉위한 384년의 일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紀)'나 〈삼국유사(三國遺事)〉 권3 흥법편 '난타벽제(難陀闢濟)'에 의하면, 외국 승려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진(晉)나라에서 오니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이고 공경했다고 한다. 침류왕은 이듬해 봄에 수도인 한산주(漢山州, 지금의 서울)에 절을 세우고 승려 10명의 출가를 허락했다.

비록 짧은 기록이지만 백제 왕실에서 스님들을 외호하고 불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명의 스님을 출가시킨 것은 백제에서 법등이 이어지도록 계를 줄 법사를 양성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불교는 마치 "파발이 왕명을 전하는 것처럼" 백제의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되었다.

백제의 왕실 여성들은 누구보다도 빨리 이 같은 상황을 접하고, 스님들의 설법을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졌던 이 무렵, 왕실 여성들의 불교 신앙과 불사(佛事) 활동에 대해서는 역사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불교 유적과 유물로 눈을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백제가 사비(泗沘, 현재의 부여)에 도읍을 두었던 6-7세기 사비시기(538-660)에 조성된 불교 유적과 유물들은 대시주(大施主)로서 왕실 여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석조 사리감〉, 1995년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백제, 567년, 74×50×50㎝, 국립부여박물관, 국보.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전경. 사진제공=국가유산청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석조사리감〉 앞면 명문의 탁본. 사진제공=국가유산청

1500년 만에 세상의 빛을 본 이름

백제 사비 도성의 외곽을 둘러싼 '부여 나성(羅城)'과 왕릉 및 왕족의 무덤들이 모여 있는 '부여 왕릉원'(옛 능산리고분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다. 바로 부여 능산리사지(夫餘 凌山里寺址)이다. 이곳은 왕릉 바로 곁에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중요한 유적으로 추정되었지만, 1990년대 무렵에는 계단식 논들이 들어서 있어서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 있었다.

1993년, 능산리사지에서 발견된 〈백제 금동대향로〉는 이 절터의 이름을 단번에 세상에 알리었다. 공방지(工房址)로 추정되는 위치에서 백제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위대한 문화유산이 기적적으로 발견된 것이다. 백제가 도달한 찬란한 문화적 성취가 높이 61.8㎝의 금동제 향로 안에 오롯이 담겨 있었다. 전무후무한 불교 공예품의 출현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비견할만한 사례가 없기에, 발견 초기에는 중국에서 제작된 후에 백제로 전해진 수입품이 아니냐는 소리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

그러나 1995년의 능산리사지 4차 발굴 조사는 이 같은 오해를 일소할 만한 또 다른 놀라운 유물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바로 목탑지 심초석(心礎石)에서 출토된 석조사리감(石造舍利龕)이 그것이다. 심초석은 목탑의 중심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다.

위는 둥글고 아래는 편평한 형상이 작은 우체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중앙을 움푹 파서 마련한 감실이 만들어내는 그림자로 인해 터널의 입구 같아 보이기도 한다. 아리송한 생김새의 이 화강암 석물을 '사리감', 즉 부처님 사리를 모신 감이라 부르는 이유는 전면의 좌우 외곽에 새겨진 명문에 있다.

감실을 둘러싼 좌우편에는 "百濟昌王十三季太歲在" "丁亥妹兄公主供養舍利"라는 총 20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백제 창왕 13년인 정해년에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으로 풀이된다. 정해년은 567년에 해당한다. 사리감은 이 무렵에 공주의 발원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제작 연대가 명확한 석조사리감의 출현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발견된 공방지가 백제 왕실이 조영한 사찰의 일부였음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했다.

명문에 나오는 창왕은 곧 백제의 제27대 군주인 위덕왕(威德王, 재위 554-598)을 가리킨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위덕왕의 이름이 창(昌)이었으며, 성왕(聖王)의 맏아들로서 554년에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부여창(扶餘昌) 혹은 여창(餘昌)이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 1993년 능산리사지서 출토된 사리감
> 백제 공주 발원으로 제작된 점 '눈길'
> 20자로 새겨진 명문 속 사리공양 내용
> 공주 본인 지니고 있던 불사리 공양
> 부왕 명복 · 백제 번성 마음 담겨 있어

반면, 명문에 등장하는 '매형공주'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헌 사료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역사서에는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은 그녀의 존재가 1500여 년 후 사리감의 발견을 통해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매형공주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석이 갈린다. '매형'을 공주의 이름으로 풀이하기도 하며, '매(妹)'를 손아래 누이로 해석하여 위덕왕의 누이동생인 '형공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다. '매형(妹兄)'을 누나라고 보아, 그녀를 위덕왕의 누나로 해석하기도 한다. 혹은 매형공주를 위덕왕의 여자 형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맏이 공주로 보기도 한다.

추가적인 사료가 등장하지 않는 한 이 어려운 문제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석조사리감을 시주한 매형공주가 위덕왕의 여자 형제이며, 성왕의 딸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무엇보다도 능산리사지에 세워졌던 목탑에 사리를 모셨던 원주(願主)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사리를 공양했던 것일까?

한 자 한 자 새겨진 글자 너머의 마음

매형공주가 지녔던 믿음과 마음을 들여다보려면, 그녀가 살았던 시대를 돌아보는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그녀의 형제이자 4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백제를 다스렸던 위덕왕이 불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군주가 지닌 불교 신앙과 정책이 그 시대 불교의 흥망을 좌우했기 때문이다.

위덕왕은 554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성왕을 이어 왕위에 등극했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와 신라의 명운을 건 중요한 전투였다. 당시 성왕은 국가 원로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라 침공을 강행했다. 결과적으로 관산성 전투는 성왕이 전사하고, 4명의 좌평(佐平)과 2만9600명의 군사가 목숨을 잃은 백제의 참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즉위한 위덕왕은 성왕의 죽음과 관산성 전투의 참패라는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위덕왕은 이 같은 정치적 위기와 인간적인 고뇌를, 부왕을 위해 벌인 일련의 추선불사(追善佛事)를 통해 극복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덕왕은 부여 능산리 일대에 성왕의 묘역을 조성하는 일을 필두로 추복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보인다. 능사(陵寺)의 건설이 그 중심에 있었다. 남북으로 중문, 목탑, 금당, 강당을 갖추고, 동서로는 회랑으로 둘러싸인 대가람을 공주 한 사람의 힘으로 조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덕왕이 선두에 나서서 이 일대에 존재하던 왕릉의 제사와 관련된 시설을 일신하여 국가적인 규모의 불교 사찰로 탈바꿈시켰을 것이다. 이는 조상의 제사를 위한 의례를 불교식으로 바꾸는 크나큰 의미가 있는 행위였다. 매형공주를 비롯한 성왕의 자녀들도 전쟁터에서 참담하게 돌아가신 부왕을 위한 위덕왕의 불사에 수희동참했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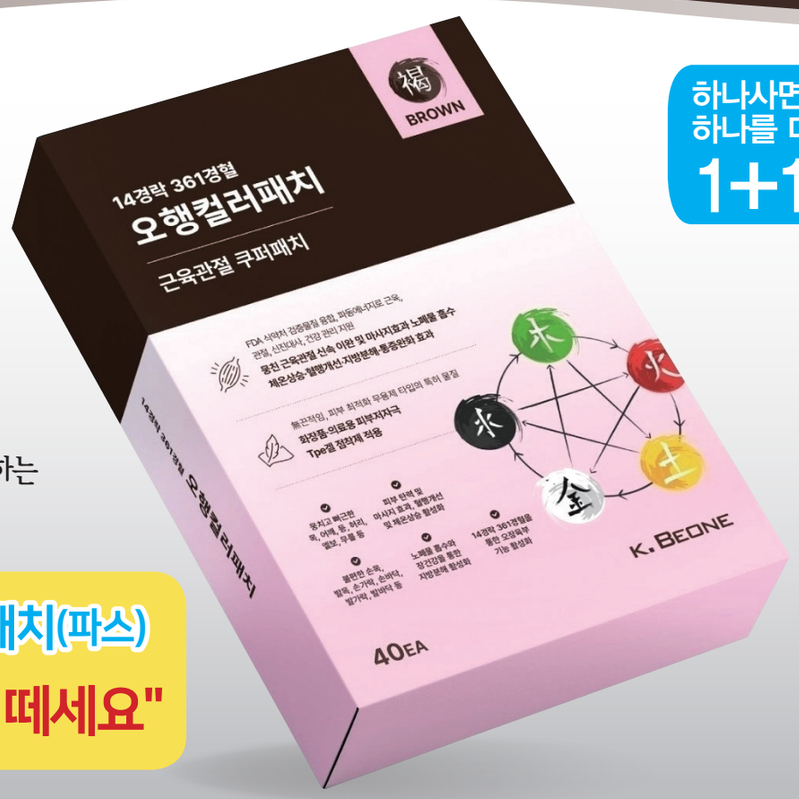
백제에 사리가 전해진 내력에 대해 알려주는 직접적인 기록은 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매형공주가 어디에서 사리를 얻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엔 어려움이 있다. 다만 능사가 건설될 때, 공주가 본인이 지니고 있던 불사리를 공양했던 사실은 분명하다. 아마도 공주는 부왕의 명복을 빌고, 형제인 위덕왕의 치세가 평화롭고, 백제가 번성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불사리를 아낌없이 공양했을 것이다. 바로 돌에 새겨진 20자의 글자 너머에 자리한 공주의 마음이다.

〈리움미술관 큐레이터〉

'재구매율 1위로 입증한 건강지킴이' 오행컬러패치 2025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하나사면 하나를 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 마음속에 갇혀 있는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라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깥에 서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추워서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 바깥에 춥게 서 있는 분도 고통이고, 안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분도 고통일지언댄 고통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하여튼 바깥에 서 있는 분들은 서 있는 분들대로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면,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길을 딛고 다니시다가 엎드러질 땐 반드시 그 땅을 짚고 일어나시죠. 딴 데를 짚고 일어나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천차만별로 나오는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 있어서, 오직 마음속에서 나온다고 할 땐 마음속에서 모든 이름도 나오고 행도 나오고 활용 자격도 또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거 거기에서 해결을 하고, 거기에서 판단을 하고, 거기에서 모든 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남) 먼저 저희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자 이런 질문을 하게 해 주신 데 대해서 큰스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요약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으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귀의하는 것으로 알아 왔습니다. 수많은 제불보살 가운데 특히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에 귀의해 온 데는 어떠한 까닭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은 한마음 공부와 무엇이 다른지요. 좀 자세히 가르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매사 생활하며 살아나갈 때엔 내 마음에서 모든 여러 가지 마음도 나오면서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미타라는 그 이름은 정신세계를 말하고 관세음이라는 것은 현상세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과거 정신세계나 현실 세계나 둘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정신과 몸이 둘입니까, 어디? 옛날에도 얘기했듯이 장갑을 낀 손이 어떻게 장갑 낀 것 하고 손하고 둘입니까? 꼈으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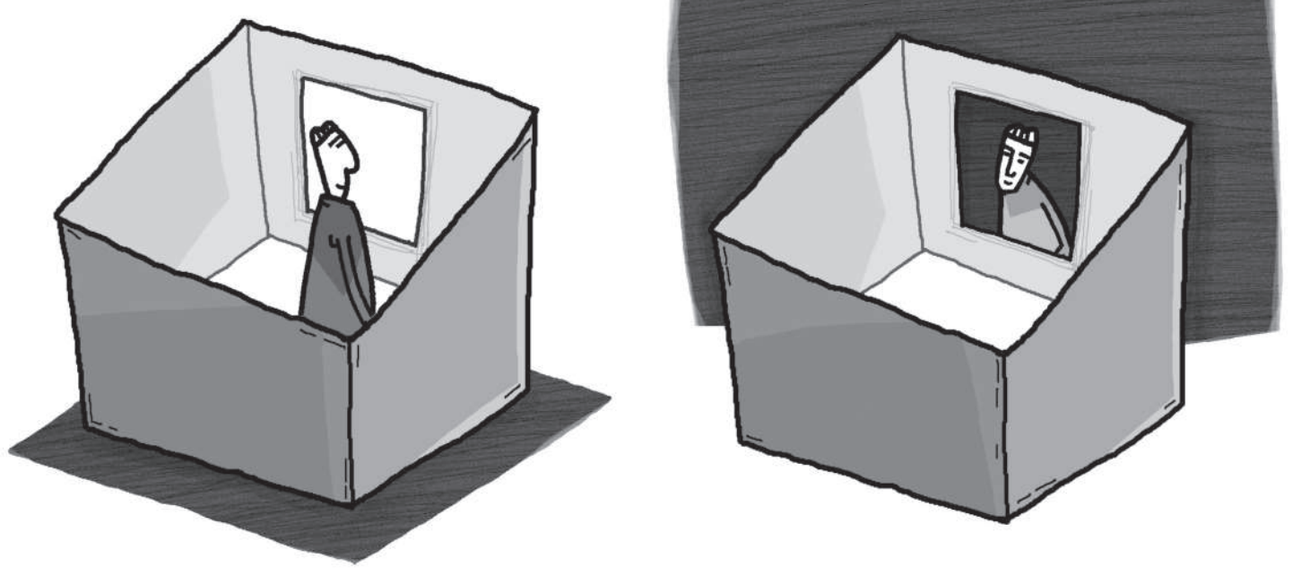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한마음 속에 아미타도 들어 있고 관세음도 들어 있으니, 여러분이 지금 아미타건 또는 관세음이건 그냥 행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둘이 아닌 까닭에, 이 모두가 하나하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일체가 다 가설이 돼 있다고 봅니다. 인연줄에 의해서 얽히고설켜서 돌아가는 이 가설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이 없다고 했죠. 큰 게 있으면 작은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면 큰 게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미타나 관세음보살이나 바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들어 있는 것이지 아미타가 따로 있고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그렇게 아신다면 됩니다.

그런데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바깥으로 찾고 거기에 끄달린다면 그건 공부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공덕이 하나 없고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나'도 발견할 겸, 발견해서 깨달으면 둘이 아닌 도리도 알 겸, 자유자재할 수 있는 바로 나투는 방법까지도 알게끔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깥으로 관세음보살 따로 있고 아미타불이 따로 있고 이런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때에 따라서 집에서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고 또 아들 노릇 하고 형 노릇 하고 사위 노릇 하고 이러시는데, 어떤 거 할 때 관세음이라 하고 어떤 거 할 때 아미타라고 하겠습니까?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그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터득이 되는 거지 내 마음 아닌 내 마음을 모르고서야 어찌 터득이 되겠습니까? 어찌 정신세계를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질문자1(남) 사람의 육신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렵고 대개의 경우는 몸 떨어질 때의 의식 수준에 따라 윤회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 떨어지고 없는 조상의 천도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 의식에 조상님들께서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가르침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사람이 모두 악업을 지으면 악의 업보가 생기고 선업을 지으면 선의 업보가 생기는 법. 그러니까 얼른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소리죠. 그러는 법이 연결되는 반면에 바로 이 세상에서 몸 떨어지면 부닥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 못 하는 법. 죽으면은 일차원이면 일차원대로 있고 사차원이면 사차원대로 있어요. 더하고 덜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 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물질이 돼서 한 물건이 나온다면 부딪침이 수만 가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딪침에 의해서 굴러가는 수레와 같죠.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랬소?

질문자1(남) 천도 의식이란 무엇이며 그 천도 의식이 조상님들께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큰스님 응.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데 좋은 일 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말을 부드럽게 하고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은 착한 업이 될 것이고, 악하게 남을 그냥 원망하고 또는 이간질해서 싸움이나 붙이고 또는 사기나 해먹고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악의 업보를 지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몸 떨어지면 그대로라. 그대로 업보에 의해서, 내가 항상 얘기하듯이 카세트에 그게 입력이 돼서, 스스로 입력이 돼서 바깥으로 솔솔 나오니까 그것이 바로 악업 선업의 대상이죠.

그런데 죽어도 그 차원에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가 항상 있는 줄 알아요. 죽었어도 자기 몸뚱이가 항상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모습대로 그림자처럼 악업의 그림자가 다 나와서 한 발짝 떼어 놓을 수가 없이 가로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도가 생긴 거죠. 이것이 그 차원에 따라서 야, 강을 건너갈 땐 자기 몸뚱이가 있는 줄 알고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체가 없는 거라는 걸 자기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요.

그 상대도 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자기도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이다

☞ 19면에서 계속

체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앞에서 가로 걸리게 있는 허상이 그대로 그냥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게 한 발짝도 못 건너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로 끄달리고 또 건너갔다 하더라도 또 빠져 죽을까 봐 물을 못 건너가고, 타 죽을까 봐 불바퀴를 못 건너가고, 그렇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장님을 이끌어 가지고 가는 도리가 있기 때문에 천도가 생긴 것입니다.

질문자1(남) 저희가 공부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갖가지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관세음보살을 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특이한 정신 상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자면 공부가 익어 가서 그런 것인지 혹은 아직 덜 익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공부 과정에서 그러한 경험이 자주 없는 경우는 그 무엇으로 자신의 공부가 익어 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요?

큰스님 알아들었어요. 그것은 아까도 요약해서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을 봤다고 하는 것도 놓아야 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신세계의 특이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내 마음속에서 빚어내는, 즉 말하자면 어떠한 물건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어떠한 정신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내 몸뚱이 속에 지금 악업 선업이 잔뜩 든 의식 그 자체가 모습으로 화해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거를 다시 거기에다가 맡겨 놓는 것이 공부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땅에 엎드러지면 엎드러지는 족족 땅을 딛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못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일러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대로 거기에 맡겨 놔야 하고, 또 그러한 게 오는 사람은 오는 대로 또 수없이 그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다 다시 놓아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 심이 천 심이요, 천 심이 일심이란 얘기가 있듯이 만 가지 법이 일심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일심에다 다시 놓고, 일심 아닌 일심을 참구해야 됩니다.

질문자1(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법문하시는 중에 통 밖에 나와야 통을 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량적으로 그 말씀은 이치에 맞습니다만 실참의 경우에선 어떠한 경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통이란 무엇이며 통 밖은 무엇인지, 또 굴린다고 할 때의 굴려지는 대상은 무엇이겠습니까?

큰스님 통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 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몸뚱이 속에서, '내가 나다, 내가 하는 거지, 내가 누구를 뭐를 줬지' 하며 나라는 걸 세우고, 모든 것을 나라는 고집으로써 상대해서 거기에 억눌려 있는 사람을 통 속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은 체가 없으니까 어디고 우주 바깥에도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넓고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벗어나야만이 나를 굴릴 수가 있지 벗어나지 못하고 어떻게 나를 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이 갇혀 있는데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벗어나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벗어나는 길도 아니요, 벗어나지 않는 길도 아니요, 그러면 진짜 어떠한 게 벗어나는 길인가. 여러분이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시고 마음속에서 그대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그 자체가 굴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마음 이전의 마음을 깨달아야 물리가 터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의 마음을 깨달아야만이 그때에 진짜 정말 공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신세계의 나와 물질세계의 내가 둘이 아니게 서로 상응 상조하는 작용을 한다면 바로 중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진짜 벗어나는 길인데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질문자1(남) 훌륭하신 말씀, 여러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문자2(남) 부처와 보살은 마음을 낸 거와 안 낸 거 그 차이라고 하셨는데 삼계, 욕계·색계·무색계는 마음의 무위법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이름을 가졌어도 한 놈이 그 일을 모두 하듯이, 그렇죠? 생활 속에서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를 하듯이 그것은 이름일 뿐이니 오직 한마음 속에서, 이름을 배우지 말고 마음의 뜻을 알아야 그 도리를 알 것입니다.

질문자2(남) 그럼 사십구라는 숫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사십구 일 동안에 선정에 계셨고, 또 보통 천도를 할 때 사십구 일을 하고, 또 과거에 보면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칠 칠이 다 갈 때까지 출입을 못 하게 했는데, 유위법으로 볼 때는 뭔가 사십구라는 게 뜻이 있지 않으냐 해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큰스님 사십구라는 것은 사십구 일이 있는 것이 사십구 일이 아니라, 사십구라는 것은 삼 삼은 구를 말했고, 사십은 동서남북을 전체를 해서 한데 합친 사십구 일입니다.

질문자2(남) 그럼 칠 칠은 사십구가 아니고 사십하고 구하고 합한 겁니까?

큰스님 하하하. (대중 웃음) 하여튼 뜻으로 볼 때는 전체가 한데 합쳐서 과거 삼, 현재 삼, 미래 삼 이렇게 해서 구를 일심으로 돌려서 (손가락을 하나 세워 보이시고) 일심조차도 없을 때에 비로소 사십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가에서 '사십구 일이다' 이런다면 그 천도의, 식의 문이 열렸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2(남)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여) 스님, 제 막내아들이 회사에 넣어 놓으면 나오고 나오고 그래 가지고 방에 들어앉아서 사람 모인 데 안 가고, 좀 늙는 기가 많고 한숨을 쉬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산소 상석을 놔서 그렇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스님 뵈러 왔습니다.

큰스님 그것이 다른 게 아니죠.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찌 나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고가 많습니까? 병고도 많고 애고도 많은데 이것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과거를 못 보걸랑은 현실을 보거라. 현실에 다가오는 걸 본다면 과거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느니라. 현실에 어떡하는가 하고 너를 지켜볼 때에 미래에 어떻게 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뺏어 갈 이치도 아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거를 녹이려면 내가 항상 말해 드리듯이,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해결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란 얘깁니다. 한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악업 선업이 모두 들어 있는 그 의식들이 자기 자신으로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쓰는 대로 움죽거려 주는 것이 이 모습과 생명과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이익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도 해 주는 보시를 해야 하고, 행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행을 해야 하는 거죠. 남한테 착하게 마음을 쓰는 마음 보시가 첫째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물질 보시는 못 하나마 마음 보시라도 해야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이렇게 한다면 바깥으로 끄달려서 그 업보는 세세생생에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한마음 주인공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해 주시오.' 하지 말고요. 해 주시오 하면 둘이 되니까요. 장갑을 낀 손이나 장갑이나 똑같이 손이 속에서 움죽거려서 장갑이 움죽거리듯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업보를 무너뜨리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낫게 해 주고,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거기 놓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4(여) 큰스님,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요즘에 제 심정이 아주 이상해요. 그러니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는지, 어찌하여 내 마음이 그러한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만 그러합니다. 이러한 것은 어찌하여 생겨나는 것이며 어떻게 하여야만이 이런 공허함을 떨쳐 버릴 수 있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큰스님 본래 마음은 체가 없어서 공허한 것도 없고 허망한 것도 없고, 마음 쓴 것도 없어요. 그런 까닭을 알면 허망치도 않고 또 즐겁지도 않고 그대로 즐거워요. 그러니까 허망한 거, 공허한 거 이런 것도 바로 네 속에서 나온 거야. 네가 있으니깐 네 속이 있고 네 속이 있으니깐 그 속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땅에 엎드러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듯이 그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 속에다가 '그 속에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음으로써,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 마음은 그렇게 체가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금방금방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작용이 되니까 그대로 해 봐요. 한마음 주인공만이, 그런 거를 마음 내서 놓고 굴리면은 그대로 돌아가니까요. 그게 작업입니다.

>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내 업보를 무너뜨려 주고, 나의 병고를 낫게 해 주고,
> 내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 그러니까 진실하게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 놓고 돌아가야 합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1월 19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㉛ 분노의 화살을 멈추게 한 부처님, 분노 시리즈 (4)

타인을 적이 아닌 '부처님'으로 보세요

강하게 키우기 위해 때리는 아버지. 윤건(27·가명)의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강하게 키우려 했다. 특히 윤건이가 말을 더듬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면 뺨을 후려치는 냉혹하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형과 달리 작고 유약해 보인 윤건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버지는 "남자 새끼가 강하게 커야지!"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성장해도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 윤건이는 게임을 하다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방문을 벌컥 열고 "요즘 버르장머리가 없다"며 때리기 시작한 아버지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보였고 눈은 희번덕거렸다.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때릴 수 없다고 느낄 때까지 폭력은 이어질 태세였다.

윤건이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팔을 붙들고 소리를 질렀다. 벽으로 밀쳐진 아버지는 윤건이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를 치며 욕을 퍼부었다. 아버지에게 달려든 이후, 윤건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투성이가 된 채 움직이지 못했다.

17살 때 기억을 천천히 이야기하는 윤건이는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윤건이가 상담실을 찾은 이유는 화가 나는 순간을 참지 못하는 자신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군대에서 더 심해졌어요. 공격받는 느낌이 들면 적을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싸우는 제가 감당이 안되요. 제가 왜 이럴까요?"

윤건이의 경우는 전형적인 '생존성 분노' 유형이다. 지난 연재에서 분노의 종류 가운데 '돌발성 분노'와 '잠재적 분노'에 대해 언급했었다. 세 번째 유형인 생존성 분노는 극심한 트라우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 생존성 분노는 원시적인 본능과 연결되어 있으며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분노이다. 이 경우 대부분 오랜 기간 트라우마 환경에 놓인 경우가 많다. 위험에서 벗어나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분노한다.

혹시 윤건이와 비슷한 분노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세히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란다. 돌발성 분노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들은 싸울 때 힘이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거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한다. 말싸움이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듯 싸우며 살짝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려도 심하게 놀란다. 심하게는 주변인들이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피해 망상에 사로잡힌다.

생존형 분노는 솔직히 고치기 쉽지 않다. 뇌에 대해 설명하자면, 편도체(amygdala)는 대뇌의 변연계(limbic system)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부위이다. 감정 조절과 공포, 불안에 대해 학습하고 기억한다. 평소 위험을 감지하면

생존형 분노, 복합 트라우마가 원인
위협 상황 인지 구조 자비로 바꿔야

비상 신호를 보내고 경계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부신 피질에 신호를 보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하도록 한다. 하지만 위험 상황이 아니라면 해마(hippocampus)가 부신피질에게 코르티솔을 그만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낸다. 우리의 뇌는 섬세한 균형 속에 작동하며 안전과 경계를 지켜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해 심각한 생존 위험에 처했던 경험이 있고 장기간 고통을 겪은 사람은 섬세한 균형이 깨진다. 이유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부신피질이 과도하게 코르티솔을 분비해 해마를 손상하기 때문이다. 로널드 T. 포터는 책 〈욱하는 성질 죽이기〉에서 이런 경우 해마가 정상보다 1/6 크기로 줄어든다고 했다. 뇌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위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치료가 된다. 희망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생존형 분노는 먼저 자신을 멈춰줄 단어나 간단한 문장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천천히' '안전해' '진정해' '숨을 세 번 크게 쉬어보자' 등 자신의 안전을 되새길 수 있는 문장이 도움이 된다. 안전함을 느끼도록 돕는 해마의 역할을 스스로 더해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전문가의 치료가 사실 필요하다. 트라우마의 특징은 과거에 살도록 하고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트라우마 치료에 탁월한 전문가들이 많다. 그들의 도움을 꼭 받기를 추천한다.

세 번째는 위험과 공격에 대한 신호를 느낄 때 스스로 의심하고 숙고해야 한다.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의심해야 한다. 생존형 분노는 언제 어디서나 두려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위협을 느낀다. 그들은 세상이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부처님에게 화살을 겨눈 사냥꾼 꾹꾸따밋따를 기억하는가? 자신이 잡은 동물을 풀어준 사람을 찾기 위해 숲을 헤매고, 나무 아래 앉아 계신 부처님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겨눈 사람이다. 꾹꾸따밋따는 숲에서 맹수와 싸우는 사냥꾼이다. 맹수가 가득한 생존 현장에서 살아낸 그의 뇌 구조를 현대 과학으로 추측하자면, 그의 해마는 1/6 수준일 것이다. 꾹꾸따밋따는 적으로 생각한 대상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순간 화가 풀렸다.

타인이 적으로 느껴질 때 "그는 적이 아니라 부처님이며, 나의 가족이다"라고 자비의 마음을 보내길 바란다. 뇌와 몸의 세포 전체를 자비의 손길로 안전하게 품는 것. 트라우마 독소를 해독하는 명약이 된다.

*사례는 내담자 보호를 위해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리했습니다.

건강 365

㉜ 쇼그렌 증후군

반복되는 입마름…'쇼그렌 증후군'입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나 노화에 의한 분비샘 기능이 떨어져 눈마름이나 입마름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인공눈물이나 인공타액의 사용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심하게 마른다면, 류마티스 질환의 하나인 '쇼그렌 증후군' 때문일 수도 있다. 국내 유병률은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나, 40~50대 중년여성에서 자주 발생한다. 또한 고령사회인 한국의 유병률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에는 쇼그렌 증후군을 얘기해 보고자 한다.

쇼그렌 증후군의 정의와 역학

쇼그렌 증후군(Sjogren's syndrome)은 천천히 진행하는 전신자가면역질환으로 외분비샘의 림프구 침입 및 파괴로 인한 기능저하를 특징으로 한다. 동반된 자가면역질환이 없는 일차성 쇼그렌증후군의 경우 40~50대 중년여성들에게 자주 발병하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10배 이상 높다. 국내 쇼그렌 증후군의 발생률을 근거로 한 연구에서 남녀 비율은 14.5:1로 보고됐다.

쇼그렌 증후군의 원인

만성자가면역질환의 발병기전은 어떤 한 가지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중 쇼그렌 증후군의 대표적인 발병 원인은 표적 장기인 침샘의 림프구 침입이다. 쇼그렌 증후군 환자의 90% 이상이 특징적인 자가항체(anti-Ro, anti-La, 항핵항체, 류마티스인자)가 혈액에서 검출된다. 이런 자가항체가 병인에 직접 관여한다는 증거는 희박하다. 하지만 질병의 진단 및 예후에 중요하다. 즉 질병의 조기 발생, 긴 유병기간, 침샘 종대 및 침샘 조직에서 림프구의 침입이 심할 경우에는 상당수에서 자가항체가 확인된다.

많은 환자가 유전적인 연관 관계에 대해 궁금해한다. 임상적으로는 한 가족에서 쇼그렌 증후군 및 다른 자가면역질환들이 자매, 모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유전적 소인이 쇼그렌 증후군 발병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자가면역질환에 비하여 크지 않다.

쇼그렌 증후군의 증상

쇼그렌 증후군의 주요한 증상은 '건조'다. 이는 눈물샘이나 침샘의 기능저하로 생긴다. 건조 증상은 대부분 8~10년 동안 느리게 진행하며 초기에는 점막의 불편한 건조감으로 시작하지만, 말기에는 심한 건조 증상으로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말을 조금만 해도 혀가 말리고, 인공눈물을 아무리 넣어도 눈의 건조가 지속되고, 구강건조가 입 안의 구내염이나 치주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증후군 90%, 자가항체 검출돼
증상조절·정기관찰 최선의 대처

이러한 건조 증상 외에 피로감, 관절통, 근육통, 피부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말초혈관이 수축 되면서 손발의 색깔 변화와 시린감을 나타내는 '레이노 증상'도 약 30%까지 나타날 수 있다.

건조증상 외의 전신침범 증상 중 가장 심각한 동반질환으로 림프종이 잘 알려져 있다. 지속적인 침샘비대, 자색발, 백혈구 감소증, 비장비대, 림프절병증 등이 동반된 경우라면 더욱 침샘림프종 발생에 대해 추적관찰이 필요하다.

쇼그렌증후군의 진단

쇼그렌 증후군 진단에는 류마티스 내과, 안과, 피부과 또는 이비인후과 진료가 모두 필요하다. 임상증상이 합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혈액검사, 눈물샘 기능 검사, 침샘 기능 검사가 모두 기준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검사 전에 건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 복용이나 동반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직업적, 환경적인 요인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쇼그렌 증후군의 치료

쇼그렌 증후군 치료 목표는 건조 증상을 호소하는 임상증상을 조절하고 림프종을 포함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이다. 건조 증상은 쇼그렌 증후군 환자에게만 필로카르핀(pilocarpine)이라는 샘분비를 촉진하는 약제가 사용가능하다(한국 심평원보험기준). 이외 보조적인 인공눈물이나 인공타액을 사용할 수 있다. 동반된 관절 증상, 피부 증상 등에 대한 증상 조절 목적의 치료제를 사용하게 된다. 이외 폐 증상, 신장 증상, 혈관염, 림프종, 중추신경계통 침범이 동반되는 경우 등 증상이 경중에 따라 치료법이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

고위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쇼그렌 증후군 환자가 일반인과 비교해 전반적인 사망률의 감소는 없다고 알려져 있다.

쇼그렌 증후군의 예방

대부분의 류마티스 질환이 그러하듯 쇼그렌 증후군도 특별한 예방법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조기진단으로 증상 조절 및 정기 관찰을 통해서 삶의 질을 저하하는 합병증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의 대처 방법이 아닐까 한다.



박지혜
거인병원 내과클리닉 교수



전법 일기

일주일 1번 대학생 법회 봉행
미래 부처 만남, 항상 설렌다

최근 MZ세대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필자는 대학생 법회를 하고 있어 더 여실히 느낀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이들의 관심을 실질적인 불교적 생활로 전환하지 못하면 이내 잦아들고 만다. 이는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본인들의 관심사엔 매우 적극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엔 냉담하다.

다행히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성신여대 불교동아리 학생들의 후기 반응이 좋다.

"불교를 통해 학업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어 요즘엔 더 행복하고 안정되었다" "불교를 통해 더 깊고 행복한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삶 속에서 청년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음을 알았다" 등등 더불어 동아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생일수록 교우관계가 좋고 연애도 하며, 학업성취도 높았다. 그래서인가 동아리 회원 수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사실 시행착오도 많았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법사'는 '강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불법을 전하는데 있어 흔히 알고 있는 형식의 틀에 걸림이 없어야 법이 스며든다. 이는 '상(相)'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동사섭(同事攝)의 마음 자세로 그들의 눈높이에서 깊은 공감으로 진정성있게 다가가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래야 비로소 불안함도 줄어든다. 처음엔 강의 준비만 열심히 해 갔다면 이제는 한 줄 법문에도 그에 관한 생각이나 의견을 나누는 토론을 많이 한다. 법회 시간이 1시간이라면 밥 먹고 차 마시는 시간은 2~3시간이다.

모든 것이 법의 주제가 되지만 무겁지 않다. 법회하고 온 날은 마치 친한 친구들 만나 맛있는 거 먹으며 즐겁게 회포를 푼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이다.

요즘엔 오히려 대학생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법회를 기획해 온다. 이번 동아리 회장과 임원들이 계획한 2025년 불교동아리 활동 컨셉은 '심도 깊은 불교 (경전 및 교리 공부)' '편안한 불교 (마음 나누기-오픈채팅방을 통한 스님과의 대화/ 감사일기 작성)' '즐거운 불교 (학교 축제 참여 및 템플스테이 활동)' '성찰하는 불교 (임종체험을 통한 삶의 소중함 깨닫기)'이다. 법사인 필자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심도 있고 구체적이다.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씨앗을 갖고 있다. 그 씨앗이 발현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지도 법사'이다. 우리나라 교육체계에서는 대학생 때가 가장 적기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학생들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도 보고, '삶'도 볼 수 있게, '세상'을 더 넓은 시야로 주인공으로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말이다. 그렇게 불교로 다져진 학생들이 세상에 나아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때 그곳이 극락이고 불국토가 아닐까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미래의 부처님을 만나는 날엔 참 설렌다.



시현 스님
안양 행복선원 주지



김권태의 **요즘 학교는**

⑫ 피우정(避雨亭) 명상프로그램

들숨날숨 집중해 '괴로움의 비' 피해보세요

하수상한 시절엔 한겨울에도 장대비가 내린다. 한나절을 넘기는 소나기가 없건마는 낮밤 없이 장대비가 내린다. 그치질 않는 빗소리에 도통 잠을 이룰 수 없다. 대체 이 괴로움의 비는 어디에서 피할 수 있을까.

학생들과 매 수업 시작 전에 명상을 한다.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앉아 이마부터 발끝까지 하나씩 신체 부위를 부르며 마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조신(調身), 몸을 고르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들숨, 날숨의 호흡을 바라보며 숫자를 센다. 조식(調息), 호흡을 고르게 한다. 다음으로 지금 당장 입가에 미소가 번질만한 행복한 순간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조심(調心), 마음을 고르게 한다. 채 5분이 걸리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괴로움의 소나기를 피해 정자에 들어간다.

괴로움의 비를 피하는 정자이기에 이 명상 프로그램을 '피우정(避雨亭)'이라 이름 했다.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자극'을 통제할 순 없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나만의 해석, 나만의 신념체계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반응은 이처럼 해석된 자극, 욕구와 신념체계로 해석된 결과물이다.

저기 앞뜰에 핀 꽃잎들이 나를 환하게 반기는 것은 꽃잎들을 환하게 해석한 내 마음의 결과물이다. 상서로운 눈구름과 불길한 눈구름은 우리 마음의 투영일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은 본래 괴로움이 없건만, '내가 옳다·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만든 것이다. 어떤 경계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계를 붙잡고 스스로 괴로워한 것이다. 이 괴로움은 결코 신의 뜻도, 전생의 업장도, 우연히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와 연하여 함께 일어난 연기적 가합(假合)일 뿐이다.

'내가 옳다'는 생각 괴로움 만들어
호흡 바라보며 숫자 세는 명상으로
마음 고르게 하며 자신 감정 통제

그렇다면 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피우정 프로그램에선 '고통'과 '괴로움'을 구분한다. 육체적 고통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정신적 괴로움인 번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대전제다. 어떤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라보면 우리는 당장 '지금여기'라는 피안에 닿는다. '지금여기'에는 나라는 것도,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도 사라진다. 괴로움이 끼어들 조그만 틈도 없다.

피우정에선 특히 들숨날숨에 주목한다. 들숨날숨은 잠시도 쉬지 않고 역동하며, 불수의근(不隨意筋)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수면 중에도 활동하는 생리적 감각이며, 그럼에도 자신의 의지를 개입해 조절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생명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상대상으로 들숨날숨에 주의를 집중하며 '지금여기'를 체험한다. 그 마음을 들숨날숨에 두는 것이다.

축구선수들은 공을 잘 다루기 위해, 발에서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차올리는 리프팅 연습을 반복한다. 그래 똑같이 발이 달렸어도 우리는 두세 번 만에 공이 제멋대로 날아가지만, 선수들은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수백 개의 공을 차올릴 수 있다. 수많은 연습을 통해 발에 새로운 감각이 생겼기 때문이다. 명상의 감각도 이와 마찬가지다. 내가 왜 이 수행을 하는지, 이 수행을 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지, 또 이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하는지 알고 실천하면 새로운 감각이 생기는 것이다. 평생을 하는 이 숨쉬기가 어떤 이에게는 괴로움의 비를 피하는 들숨날숨의 정자가 되어, 비에 젖지 않고도 내리는 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동국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사〉

기자칼럼

종교인의 말

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진행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예방 자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얼굴이 핼쑥해졌다"고 말하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우리당 의원들이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격려를 부탁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의 얼굴이 조금 더 상해 있습니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보도되자 세간의 반응은 뜨거웠다. 대부분 "국민들이 고생하는데 국회의원들 얼굴 상하는 게 중요하냐"며 진우 스님의 일침이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뤘다. 6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한 방송국 뉴스 동영상도 있었다.

1월 21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진우 스님은 정견을 제시했다. 진우 스님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구촌은 전쟁의 고통과 기후 위기, 환경 파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나 흰 눈이 녹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면서 "현실을 바로 보고 바른 지혜와 의지로 스스로 주인공이 돼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자세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비불교적 발언으로 문제가 되는 종교인도 있다. S스님이 대표적이다. 특히 S스님은 "전광훈 목사가 부처님보다 위대하다. 그래서 전 목사님이 계시면 큰 절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구경〉에는 '부재구중(斧在口中)'이라는 말이 있다. '입 속의 도끼'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부처님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입안에 도끼가 함께 생긴다. 그 도끼를 잘 간수하지 않으면 제 몸을 찍는다"고 설하고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구업(口業)이 불러오는 여러 재앙을 크게 경계한다. 인천의 스승인 스님들의 발언은 큰 영향력을 갖기에 더욱 높은 책임감이 요구된다.

최근 진우 스님이 기자회견 등 공식석상에서 보여준 따끔한 일침과 애정 어린 조언들은 스님의 시선이 '국민'과 '화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종교인의 말은 응당 이래야 한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사고로 잃은 오른손…
손보다 가족 생계 걱정에 눈물

네팔인 차파카인 고팔 씨, 분쇄기에 오른손 절단
일 할 수 없어 가족에게 생활비 못 보내는 상황
손보다 가족 생계가 더 신경 쓰이고 막막한 현실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부석사 불상’은 ‘쓰시마 불상’이 아니다

현불논단



이상근
(재)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

서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647년 만에 고향인 부석사로 돌아가 이운·봉안됐다. 봉안 후 부처님오신날인 5월 5일까지 100일간 머물며 불자와 지역민에게 인사를 나눴다. 불상 이운 소식은 1월 16일 주요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보도는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보였다. 불교계와 충남지역 언론은 647년 만에 서산 부석사로 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왜 647년만인가에 대해 1378년 9월 천수만을 거쳐 부석사, 풍전역, 서산 관아까지 왜구에 의해 침탈당한 시기를 불상 약탈의 시기로 특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2022년 9월 ‘고려말 왜구의 침탈과 서산 부석사불상과의 상관성 세미나’에서 중세가 연구가 이영 교수 등이 ‘고려사’ 등에 기록된 서산 지역의 5차례 침탈 가운데 침탈 경로, 인근 피해 상황 등을 기록한 사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얻는 결론이다.

봉안위는 2013년 3월 발족 이후 ‘서산 부석사 불상’ 토론회 등을 12차례 이상 진행했고, 대마도 방문 조사를 6차례 하면서 얻은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불교계와 지역 언론은 왜구 약탈 사실과 함께 647년만에 고향에 간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반면에 교토 통신, 산케이 등이 보도한 기사는 대부분 ‘쓰시마 불상’이라고 표기하면서 ‘간논지(觀音寺)와 소유권 인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서산 부석사에서 1월 24일 친견법회를 연다’는

서산 부석사 불상 647년만에 귀환
日언론 ‘쓰시마 불상’ 표기 안될 일
부석사-간논지 흉금 없는 대화 필요

내용은 일본이 ‘용인한 결과’라고 다뤘다.

일본 언론이 ‘쓰시마에 있던 불상’이 아닌 ‘쓰시마 불상’이라고 보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 언론이 사실 확인 없이 ‘쓰시마 불상’이라고 하는 점은 더 큰 문제이다. 대마도에는 있는 87점의 ‘조선 불상’ 중에 제작 내력이 밝혀진 것은 서산 부석사 불상이 유일하다. 이런 이유로 1978년 발간한 〈대마의 미술〉에서는 서산 부석사 불상이 대마도에 온 이유로 “왜구에 의한 일방적 청래(請來)”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2012년에 있었던 쓰시마에서의 불상 도난 사실만 부각하여 보도하는 것은 불상의 역사를 삭제하는 것이다. 역사가 부정당하면 ‘유산’이 아니라 ‘물건’일 뿐이다.

2016년 7월, 2023년 2월, 2023년 10월 3심을 거친 소유권 재판에서 판결의 공통점은 서산 부석사가 원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왜구 약탈의 상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불상의 원상회복에 있어 중요한 내용이다. 100일 친견 법회 후에 대마도로 돌아가는 관세음보살좌상을 무인사찰인 간논지에 다시 안치할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10년 동안 간논지의 상황은 더 열악해졌다는 것이 수차례 방문 모니터링 결과이다. 이로 인해 2022년 대마시립박물관이 조성되면서 박물관에 기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하지만,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에서 박물관은 도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약탈품’의 존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간논지가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 피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간논지가 재판 과정에서 ‘부석사의 동일성’을 부정했던 것은 사과해야 한다. 서로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던 것을 할 수 있던’ 세상이 되길

세간과 출세간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교수

연말연시를 휘몰아치는 겨울바람 소리가 유독 ‘을씨년스럽다.’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직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 성난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등등을 빗대 애써 골라본 단어다.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헷갈리지만, 달갑지 않은 뉘앙스의 말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렇게 을씨년스러운 2025년 을사년 새해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우리를 찾아왔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기분이 아닐까 싶지만, 뭐 어떻든.

그런 밖의 일들과는 무관하게 음력 설날 즈음이면, 한 해 동안 내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결심하는 나만의 오랜 습관이 있다. 언제나 그렇듯 연말에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 늘 자책하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연초에 이런저런 일을 계획하는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일 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해마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나의 경우 하고 싶은 일은 대부분 돈이 많이 드는 일이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 만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고유 활동영역인 만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남들보다 더 잘하거나 최소한 남들만큼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항상 어깨를 짓누른다. 좋은 강의를 해야 하고, 좋은 글을 써야 하는 일 등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다.

어제 잘 살지 못하면 오늘 없기에
연초, 우린 여러 새해 계획 세운다
당연히 누렸던 것 누리는 한해 기원

그러다 보니 나는 늘 남들보다 덜 행복한 것 같았다. 아니 내가 남보다 더 불행할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렸던 것 같기도 하다. 나보다 강의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은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가 정년퇴직할 무렵이 다되어서야 어떤 작은 깨달음 하나를 얻을 수 있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잘나서 행복한 사람도 많지만 나보다 못나서 불행한 사람도 적지 않다는, 아주 평범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던 것. 그렇다면 나의 선택지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 남들보다 행복하기보다는 남들보다 불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를 제대로 바로 보자는 것.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보다 행복한 것은 무한경쟁의 영역이지만, 남들보다 불행하지 않은 것은 오롯이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는 일이 아니던가.

연초에 이런 소박한 다짐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어제를 잘 살지 못했다면 오늘의 나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같은 범부 중생들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스스로 점검해 볼 일이다. 그래서 올해 나의 한해 다짐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더 없이 행복하겠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경험상 이런 단순한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라도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던져보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어수선하기 짝이 없는 오늘보다 2024년 12월 3일 이전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았던가. 일상의 위대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하긴 말을 해놓고 보니 조금 씁쓸하기는 하다.

社 說

선명상 대중화, 국민운동으로 확대되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신년 기자회견이 1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우 스님은 치유·평안·화합을 기치로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약 18분간 진행된 기자회견문 발표를 통해 진우 스님은 ‘선명상 대중화’를 주요 종책 과제로 제시했다. 당장 지난해 호평을 받았던 국제선명상대회를 올해에도 개최해 한국불교 전통의 수행문화 계승 및 정체성 함양과 우리나라의 명상 인프라를 총결집하는 계획이 인상 깊다.

또한 세계인에게 선명상을 알리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국내와 명상전문가를 초빙,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며, 서울 성북구 안암동 중앙선명상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중앙선명상센터는 도심 속에서 안정적인 수행환경을 조성해 선명상을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선명상 보급의 중추가 될 전문 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부터 3원 체재에서 1원 체재로 전환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도 크다. 특히 진우 스님이 스스로 “전법은 총무원장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만큼 전법 활성화가 조직 개편을 통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가 주목된다. 실제 조계종은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이 쉽게 종단 활동에 참여하고 사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 중심에서 지원 중심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승가교육 시스템도 일신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교육부터 승가기본교육까지의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도입해 산중에서도 양질의 교학을 학습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도 추친된다.

문화를 통한 전법을 위해 4~5월을 ‘불교의 달’ ‘마음 평화의 달’로 만든다는 계획도 눈길을 끈다. 힙한 청년들과 함께하는 불교박람회, 마음의 평안을 찾는 국제선명상대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연등회를 연달아 배치해 세대와 성별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조계종의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시작된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국사회에 조계종의 이 같은 종책 계획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봄’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선명상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화합하게 한다는 진우 스님의 계획은 대승불교의 기치인 ‘자리이타(自利利他)’와 맞닿는다.

포교·전법이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탈종교, 저출산, 고령화의 파고를 넘는 것은 혁신에 가까운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다. 앞으로의 사람들은 자신의 니즈를 충족 시켜줄 때 비로소 종교의 문턱을 넘는다. ‘선명상’은 그 문턱을 넘게 하는 방편이다. 선명상 대중화를 통한 전법에 종단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진우 스님은 기자회견에 이렇게 약속했다. “2025년 한국불교는 지난겨울 상처받은 모든 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봄을 준비하겠습니다.”

진우 스님이 보여줄 ‘따뜻한 봄’이 기대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9년(2025) 1월 29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g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